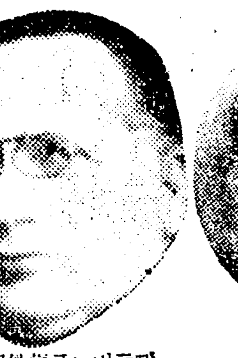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發行人 方應謨

締約國被襲時 即時援助를相約
結局蘇聯邦主張을容認
佛蘇條約正文發表

佛外相라발


蘇外相리트비노프

【巴里三日發】二日巴里에서 調印된佛蘇相互援助條約의 正文은 三日佛國外務省에서發表하엿는대 그要項은如左하다

一、兩締盟國은 그어느一方이 歐洲의어떠한 國家로부터 侵略의 脅威를受한 境遇에는 聯盟規約 第十條의 領土及 政治的獨立保障規定을 發効시킴에 要하는 諸手段에關하야 即時協議를 行할것을約함。

二、締盟國의 一方이스스로 挑戰한일이업시 歐洲國으로부터 侵略行爲를受한 境遇에는 締盟國의一方은 即時 이것을援助할것을約함。

一、兩國間의 相互援助는 聯盟理事會가 規約第十六條의 制裁規定에基하야 勸告를發하는 即時로 各勸告의主旨에따라 實行될것이나 假令理事會가 勸告를 發하지안코 또全會一致의決定에 達하지못하는 境遇에도 兩國間의相互義務는 變化업시 適用하기로함。

一、本條約은 兩締約國이 聯盟國으로서 世界平和를 有効히 保護하기爲하야 必要하다고 認定한 諸手段을實行할 義務를 조금이라도 極限하는것이라고 解釋될것이 아니오 또聯盟加盟諸國에 依하야 約束된 諸義務도 조금이라도 狹少케하는것이라고 解釋될것이아니다。

一、本條約은 批准交換後 即時 發効하야 五個年間 有効로하고 그리고 滿期後도 一個年間의 豫告附로 締盟國의 어느편에 廢棄通告를 하지안는限 無期限으로 그 効力을 存續하기로함

이므로 當然 上院의 批准이 必要하다。

海軍演習에對해 米海軍省發表

【華盛頓二日發】米國海軍의 行動에對하야 海軍省에서는 二日午後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海軍大演習에 參加한 米國艦隊中戰鬪艦部隊는 大槪三日早朝로써桑港을 出發할터로驅逐除는이미 出港을開始하엿다 今回의演習은外國船의觀戰을希望치안코또 夜間에消燈하고 演習을行하는 關係上衝突等의 危險가잇슴으로 一般商船은 演習區域內로드러오지안토록 警告한다 그리고確實한 方面으로부터 드른바에依하면 今回의演習作戰은假裝攻擊艦隊(赤軍)는 千島列島의 上位北部의 某地點에 集合하고 防禦艦隊(靑軍)는 하와이群島西北部에集中한後 假裝攻擊軍이알라스카又는 米本土西部沿岸에上陸을企함想定下에 攻防作戰을行할터인데 大演習에는 事實上戰時狀態命令을 發하야艦上으로부터의 라디오發聲은勿論燈도全部消燈하고甲板의 喫煙嚴禁、全員砲搭其他의勤務、四時間交代等戰時同樣의狀態下에 擧行하리라한다

話題解說 東京政界의 勢力關係

◇

貴族院議長 近衛文麿公을 中心으로 政友會라는것이 組織되어 將來 貴族院을리-드할것은 勿論이오 政界에 一大勢力이 되리라고한다。政黨政治가沒落한後 東京政界에는 新官僚派가 擡頭한것이 事實이오 따라서 政黨의 勢力變動도 여간複雜化한것이 아니다 더욱이 內閣審議會工作을 中心으로 政民兩黨의 關係가 微妙하여지고 床次派와 政友會側의 軋轢이 激化되는以上 政界의 分野는 좀처럼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

여기에 簡單히 人物關係를主로한 政界의 分野를 살펴보면 다음과 갓다。

◆岡田首相은 海軍出身으로 齋藤實、大角海相等 小數의支持가 잇슬뿐이오。

◆後藤內相은 國維會가 形式上解體는 되엇스나 亦是 同會一派를 中心으로한 新官僚派의 總帥格이니 近衛文麿公을 爲始하야 吉田淸記官長 酒井…

◆町田商相은 民政黨總裁가 되기前에는 純然히 自派라는 것을 가지지 아니하엿스나 지금에는 前總裁若槻系의 擁護가 잇슴은 勿論 本部派인 櫻木、永井、櫻內等의 支持가 잇고 伊澤系와도 永井을 通하야 親交關係等은 維持하고잇다。

◆床次遞相은 政友會內部에서 表面 그다시 勢力이 업는듯하나 直系만도 議員 十七名이 되는 同一行動을 取하엿고 아즉도 政友內에 隱然한 從黨이 三十名은 되니 그勢力도 간과할것은 아니다。

◇

그다음 政黨으로 보더라도

◆政友會 總裁鈴木系 久原系 中立及 床次系로 正히 三分天下의 形勢이니 大政友會의 舌鋒도 여기에 잇다할것이오。

◆民政黨 本部派 約四割 若槻系 約二割 宇垣系 伊澤系 安達系 各約一割 富本系 一割五分 安達系 五分程度이다。

◆國民同盟 擧黨一致를 말하고 民政黨을 脫하야 新黨을 組織한 安達系도 小數를 가지고는 別道理가 업는모양이다 더욱이 國盟內部에는 中野正剛을 中心으로한 國家主義派와 山道襄一을 首領으로한 議會主義派가 잇서서 몃번이나 分裂의 危機를 치럿다。

◆以上은 정말 走馬看山格의 紹介에 不過하거니와 軍部關係라 財界關係는 後日機會를 다시 엇고자한다。

히틀러獨逸內閣 分裂危機에直面
國防、航空兩相과의對立激化
히總統支持는「노」外相一人뿐
再軍備豫告를中心으로

【倫敦一日發電】英國에傳한 情報에依하면 獨逸의히틀러內閣은 現在 重大한分裂의 危機에直面해잇다고한다 即히틀러總統 노이라트外相對 부롬벨그國防相、피링航空相과의 對立으로 後者는 히틀러總統의 政策을 露骨的으로攻擊하야 過般의 陸軍擴張宣言과 今回의 潛水艦建造를 英國에 미리 通告한것을失敗라고하고 먼저 武裝하라 그런뒤에 宣言하라는態度로 끗까지 秘密히 軍備를 完成하야 그後에公表할것이라는것을 主張하고히틀러總統의 公表主義에 依하면獨逸은未久에 失敗에終하리라고하고잇는데 總統을支持하는者는노이라트外相 單一人이라고한다

米獨通商協定 改訂豫備交涉

【華盛頓一日發聯合】米、獨兩國當局은 來十月十四日 期限滿了가되는 現行米獨友好及通商協定에 代할新友好通商條約締結에 關하야 豫備的交涉을 開始하엿다고 發表하엿다。新條約締結에對한米國側의 意圖는 如左하다。

一、新條約은 舊條約中의 最惠國條款을 除去할것、

一、新條約은 相互求償原則에則하야 獨逸이 對外支拂에 支障이업도록 그對外支拂額에가까운額을 獨逸製品으로 輸入할것。

一、新通商條約은 舊條約의 延長과는 달라서 全然 새로운 基礎우에 서는 別個의 條約

民世筆談(二)
民衆的匪運
平凡無爲한現下過程

安在鴻

×

無何先生 足下

英雄이 時勢를 도음느냐? 時勢가 英雄을 도음느냐?는 이미 陳腐한 말입니다 英雄은 一個特種의 人物을 指定한 말이니 一個特種의 人物일지라도 結局은 時代와 民衆의 意圖와 力量의 總和로써 함이아니면 어찌할수 업스러니와 全民衆으로서도 그 다닥치고 잇는 時勢가 힘에 벅게 不利할 境遇에는·또한 無可奈何의 經緯가 업지안합니다 그中의 激甚한 例는 잠깐 廻避키로 하더라도 一九一八年 戰敗以來의 獨逸國民은 그 世界에 虎視하든 七千萬 大集團의 强固 또 熾烈한 實力으로서도 列國의 包圍한 抑壓속에 꿀적참어 從順할밧게 업섯스니 이는 敗하야 오히려 强隣의 두려함을 밧고 벅내어 내닫으면 世界가 눈이 휘둥그래지는 强大國民의 일인것이오 一八八〇年代 前後의 愛蘭人은 政治上으로는 絲毫의 自由가 업고 經濟上으로는 離村하는農民의 무리가 떼를 지어 海外로몰려가는 悲境에 빠젓스되 憤怒한 相對者는 다내지 안코 蒼天은 워낙 하소를 듣지 안헛스니 이는 所謂 弱少民族이라는者의 밟어온 徑路입니다。

×

結成된 英雄的인 民衆이 혹 스스로 時勢를 맨들수 잇지마는 時勢가 의처스러워 民衆을 市井鄕人으로 雌伏케 할수잇는 것입니다 歷史의 無慈悲한 바위가 뛴틀업는 因果의 天羅地網으로 덧허놓은 萬衆으로도 드되어 手段을 가눌수 업는때에는 비록 鐵血鋼心의 사람이라도 손을때어 물러서고 하늘을 처다보아 긴한숨할밧게 업는것이니 時勢만을 탓할이 진실로 孱儒丈夫의 짓이지만 時勢에 盲目임도 또한 愚拙木强의 일일것입니다 이時勢의 어려움이 孤獨한 人爲의 힘으로는 率爾히 어찌할수업는때가 歷史에잇서 가장 답답한 平凡無爲한 時代의 過程으로 될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눈압해 맛닥드린 時勢야말로 이平凡無爲한 歷史的過程이라고 아니할길 업습니다。

×

예전에「한니발」은「로마」人과의 勝敗에 밀려나가 海外異域에서 失意의 自殺을 이루엇고 魯仲連은 차라리 東海를 밟기를 願하엿스며 許生은 經世의 大材를 품고서도 梁鉅萬의 黃金을 海中에 던지고 褸衣로 一生을 지내다고 하니 이것은 모다 決定的인 不利한 時勢가 英雄志士로 時代를 등지고 홀로 넘어지든 情景을 그으린것입니다 아마 天下血性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크게感하는바 업슬수 업을것입니다。

×

그러나 一人民의 久遠한 歷史的 途程에는 반드시 政治的 得意만을 期할수업고 하물며 政治的 重壓의 時代에 오히려 辛勤刻苦 써 그 洗鍊된 生存의 法力을 潛蓄할수 잇는것이니 이것은 難局에 다닥친 今古東西의 人民들이 한가지로 選擇하게되는 必然의 길이오 또 當然의 標的입니다 그러나 吾人 朝鮮人의 民衆的 生存의 過程을 살피건대 耳目의 見聞에서는 應酬할수업는 超群的 新進에 奔命하려하는데 實踐의 生活에서는 오히려 低劣한 舊形態에 沈滯및 停頓되고 잇스며 尨大한 觀念的形態에서 窒息한意欲의 熱火를 피어올리는 분수로는 過近한 科學的인 實際利害의 問題에서는 넘우 粗率한 不着眼과 無關心과 및 不干與를 無意識的으로 또 意識的으로 過誤하고 잇습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歷史的 및 政治的의 重壓미테 遭際하고잇는것이 이미 큰 民衆的 匪運인데 이歷史的 難局에 冷靜하고 또 熱烈한 雌伏하는 强猛의 停頓하엿스되 生長하는 民衆的 또 民族的의 沈痛한 意圖와 밋불라는듯의 精進의 惱難은 너를玉成」하는途程을 가출수업는것이 거듭하는 匪運입니다 참 큰匪運입니다

×

무릇 一人民 一民族의 運命은 그 關係됨이 非常히 큰것이니 그것은 一個의 淸高한 士子가 혹 西山에 노래하야 餓然히 가고 혹 深山絶峽에서 세상을 숨어 홀로 조촐할수잇슴과 견줄수업는것입니다 時勢가 열리매 혹 飜進할수잇고 時勢가 막히매 그어려움을 헤아리어 沈默의 精進을 함을 要하는것이니 이일이 實로 至難한것이오 또 가장 會貧한 文化民族으로서의 할수잇는 最善의 일입니다. 無何先生! 나! 時局의 어려움에 際하야 갓갓으로 漢山에 올랏스니 이 또한 空疎老流의 일이오리까? 昔老의 鄕國陳은 萬景臺에 올라 百年奉氣誤書生을 嗟嘆하엿습니다

驚異的爆擊機! 三千哩를無着陸翔破
◇米國에서目下製作中

【華盛頓一日發電】加州 산타·모니카의 대그라스飛行機製作所에서는 目下 巨大한爆擊機를製作中인데右爆擊機는 無着陸으로 三千哩를 飛翔할수잇는續航力을 有하고, 時速 二百二十五哩、積載量 二千五百폰드로 米國은 이에 依하야 大西洋及太平洋의 空襲에 對한 防禦를 一千哩에亘하야 擴張할수잇게 되다고한다。

英佛伊獨四個國 空軍均勢를企圖
英首相맥도날드氏

【倫敦一日發電】英國政府는 獨逸非難의 露骨한 輿論에 눌려서 對獨强硬策에 轉向하게되엿스므로 今後軍備競爭은 不可避하게되어 軍部關係者로하야금 凱歌를 부르게만들엇다 軍部側에서는 極力 空軍擴張을 圖하려고 準備하고잇는데 英國內閣의 多數의 意見은 부질업시 戰備熱을 올리는것은 賢明한것이 아니라고하고잇다 特히 맥도날드首相은 現下의 輿論의 動向을 憂慮하야 이것을 鎭靜시키는同時에 一方 獨逸의 베르사이유條約 海軍條項의 廢棄에는 絕光伏條件으로 對 承認을 不與하고 建艦計畫도 極力阻止할意向이다 그러나 獨逸이 無理하게 再軍備를 實現한 境遇에는 英國은 劣勢에 陷할 憂慮가 잇스므로 爲先空軍大擴張을 行하야 이것을 補整할 터이나 如斯한 軍備競爭의 方向을 回避하기 爲해서는 新協定을 作하는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고잇다 即 英獨佛伊四個國의 空軍力의『패리티』를 實現하야 空軍 保有量을 最低限度에 止케하려는 것이라고한다 但 空軍『패리티』의實現에는 西歐空軍援助條約의 締結이 絕對로 必要하다고하고잇다

中國轉口稅廢止

【電通南京三日發】今日立法院會議는 財政部에서提出한六月一日부터轉口稅廢止의件을可決하얏다

駐日獨大使拓相訪問

【電通東京三日發】駐日獨逸大使 데리크센氏는 四日午前十一時 拓務省에 兒玉拓相을訪問하엿다 同大使는來十四日朝鮮、滿洲各地視察의途에오르므로 拓相과協議한것으로 認하고 四十五分後 辭去하엿다

對獨空軍均勢엔 英、六百臺不足!
獨逸은一個月百臺製造能力保有
可驚할獨逸空軍勢力

【倫敦三日發聯合】필립空相의 察力勢力과 均勢로 붙수잇스므로 獨逸空軍에 依하야 獨逸空軍과 絶對均勢를原則으로 하는 英政府로서는 적어도 戰無比를 자랑할수잇는計畫을斷行하고잇슴은 움직일수업는事實이다 獨逸은一個月에 百臺의製造上 均勢는維持될수업는것을解釋關係六百臺를急速한建造되다右建造에는 적어도 二千四百萬磅의追加豫算이 必要한데 英勢力인 大體六百五十臺라 하는英國空軍測量部隊를 加算한 英國空軍

마駐日加奈陀公使 來栖通商局長訪問

【電通東京電話】駐日加奈陀公使 마러氏는 四日 午前九時 外務省에 來栖通商局長을訪問하고加奈陀政府의 日本品防遏措置에 對抗하는 日本의防衛措置에 對하야 여러가지意見을 交換하엿는데 베네트首相을 首班으로한加奈陀政府當局이 果然如斯한 巨額의經費를一擧에支出할수잇느냐 함은매우疑問視되다

加奈陀保守黨內閣의 態度는相當히 强硬한것이잇스므로 結局 通商擁護法의 發動에依하야 斷乎積極的方針을 試할밧게업을것으로 認定되게되엿다

比島農民一揆 漸次平靜에歸還
死者多數續續埋葬

【電通마닐라三日發】比律賓諸州에 亘하야 사크다리스타스結社를 中心勢力으로 勃發한 農民一揆도 警保隊의 急速한 活躍에 依하야 漸次 鎭靜되어 三日夜에 至하야 諸州의 秩序는 거의 回復되고 一、二都市를 襲擊한 사크다리스타스團도 四散한 模樣이다 全島를通하야 今回의 暴動에 依한 死者는 多數인데 카보야오에서는 이미 死者는 各各共同墓地에 埋葬하엿다

라氏는橫濱滯在

【電通마닐라三日發】사크다리스타스結社의 라모스氏는 目下橫濱에 滯在中인데가리 同地에잇는 比律賓國社 알레니오리칼데將軍과 折衝할것으로 信憑되다

雲南의外國人等 河內에續續避難

【東京電話聯合】貴州省으로부터 省內에 侵入한 共産軍을 雲南省政府는 알서 首席龍雲氏의 名義로 省內在留外國人의 撤退를 要請하야 이미 在留佛國人 婦女子는 各各 河內에 避難하고잇는데 三日 雲南戶根木領事代理로부터온 外務省着電에 依하면 三十日在留民會議의 結果 日本婦女子를 河內에 撤退시키기로 決定하고 一日 먼저 九名이 河內에 向하야 出發하엿다고한다

八面鋒

『로보트』飛行機가 太平洋岸에서 大西洋岸까지 三千哩를 十一時間餘에 翔破。

◇ 조금잇다가는 사람이全部『로보트』로變할날이 올것을생각하니『로보트』로되기前에 嘆息이나하여둘가。

◇ 親獨과反獨으로 英政界에反目이생기고、發表와秘密로 獨閣內에 衝突이생기고。

◇ 現象은가트나 內心이다르고、態度는다르나 目標는 가트니 가로대『國家主義의勝利』。

◇ 하루에 千六百餘名式、東京에서 所謂紳士浮浪者를檢擧。

◇ 小栗總監이 大律을 들엇스니 白色「테로」가 戰慄하는幕인가

獨、丁抹서軍馬購入

【電通코펜하겐丁抹三日發】獨逸陸軍代表는 前週中 南瑞典地方에서 軍馬五百頭를 買入하엿다 價格은 一千四百크로넬이엇다고 그리고 이어서 來週에는 獨逸陸軍購入委員團이 丁抹에 來하야 다시軍馬의 追加購入을行할豫定이라고한다

英의對中援助 五十萬磅借款成立
政治的意味多分包含

【電通上海三日發】中國中央銀行은 數日前 銀價大暴落의際 香港、上海兩銀行이 中央의 要請을 容認하야 兩者間에 密約을 結하고 中央銀行에 加勢하야對外爲替의 防戰資를 하엿는바 三日 右兩中央銀行으로부터 右兩銀行에 支拂할額을 그대로 借款한것으로 形式上은 肩替決濟 資金援助이나 事實上은 英國의 對中財政援助로 今後도 此種契約下에上海香港兩銀行의 活動이 繼續될것으로 多分히 政治的意味가加味되어잇다고 注目하고잇다

水防團規則要綱

今日總督府令第六十八號로 水防團規則이發布되엿는데 그目的및組織은如左하다

一、水防團의設置 水防團의設立目的은 水害의警戒防禦이다 따라서每年洪水의害를 受할河川의沿岸及그附近에서府、邑、面또는二以上의府、邑、面의 行政區域을地域으로서 道知事가그認識又는府邑面等의申請에依하야 此를設置할時에는 그名稱及地域을告示할것

二、水防團의組織、任務 水防團은團長一人、部長、班長、水防手의若干人으로써組織하고必要한時는 副團長을置할수잇는데 副團長은 警察署長의 命을承하야 水防團의 事務를管理하고團員의 指揮取締에 任하고其他副團長、部長及班長等의 職務는大體消防組의幹部와 同樣으로團長、副團長及部長은道知事、班長及水防手는警察署長이任免하고 團長은水防團의 核心으로 그能否는곳水防의活動에影響하게되므로 大體그地方의 公職者、名望家、有力者中에서任命될

三、水防團의活動 水防團은 警察署長의命을 受하야水害警防을爲하야 出動하고그指揮를바더活動함을 原則으로함 그러나 水害의境遇에는 河川管理廳도또한河川及附屬物의維持修繕에關한 作業에限하야 水防團을 指揮할수잇스며또洪水의危險이切迫하야 警察署長의指揮를바들 餘裕가업는때는團長은水害警防及水防團의 災害警防等應急措置를 함을得함 又水防團의 水害以外의 災害警防等을 爲하야도 警察署長의命이잇슬境遇에는出動치안으면 안될은消防組와同一함

四、水防團의費用 水防團의費用은府邑面의負擔으로함 그리고水防團의地域이 二以上의府邑面의區域에亘할時는道知事의所定에依함

五、其他 水害의警防에必要한設備、水害警防의方法、演習、其他水防團에關하야必要한事項은 道知事가此를規定함

蘇聯에對應해 空軍擴張計畫
經費四千八百萬圓今年度豫算에計上
三個所에 防衛司令部新設

【東京電話聯合】現在 蘇聯邦軍의 用飛行機는 三千臺를 突破하엿다고 하는데 그中 極東國境方面에 集中하고 잇는것만으로도 六百臺以上에 達하야 滿洲國과 日本의 國防上 重大關係가잇슴에鑑하야 陸軍當局에서는 이對策으로 空軍의 擴充을 期하고 잇는데 그計畫은 航空部隊의擴張、防空機關의 新設、飛行士養成機關의 整備擴充과 航空本部의 改革等으로 今年度豫算에는 四千八百萬圓을 計上하고잇다 右中 航空部隊의 擴張에 對해서는 飛行聯隊數個를 合하야 岐阜、〇〇、臺灣의 三個所에 置하려는것으로 成하야이飛行團을 編成하야 防空機關에對해서는旣報와如히關東、阪神地方、北九州의三個所에 防衛司令部를 新設하려는것이다

出張所開設
拜啓 新綠의此際에 여러분의萬福을仰祝합니다 陳者弊店이與日隆盛하게되은都是江湖諸賢의深深한愛顧와後援의結果라고깁히感銘하고잇는바인니다就告今般平壤出張所를開設하고益益業務를精勵할決心이옵사오니아무조록一層더鞭撻後援하여주시기를懇望하와敢히紙上으로써感謝衆人事를올니이다。
昭和十年五月
金 銀 福 白金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電話下谷(83) 〇九五九番 〇九九二番 〇八五八番 〇二八八番 振替東京六〇〇〇番 受信略號(トウケウイシフク)
平壤府旭町 株式會社石福商店 平壤出張所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セウイシフク)

시에론레코-드
오빠는풍각쟁이 新譜 獨唱

金銀高價買
大邱中央通 大邱金銀商會 電話一三六七

特許 イヅツ芳香油
便所惡臭除去 惡臭를除去하고 芳香을發散함 目下景品附賣出中

正式 國旗 タオル 徽章 全般製造卸
京城黃金町三 大久保眞敏商店
カタログ相場表送呈

セイコー高級萬年筆 宣傳特賣 限本萬三
十四金ペン 硬質純イリジユーム付 高級エボナイト軸 クリツプ付
新製品宣傳奉仕大投賣急告!! 特別元價大奉仕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七 セイコーシヤ地方時計部

伊勢神宮御料酒
白鷹 ハクタカ
斯界의最高權威
絕對의醉가업는 保健의淸酒

平壤春季競馬大會
場所 船橋里新設競馬場
時日 五月、四日(土)五日(日)六日(月)七日(火) 十日(金)十一日(土)十二日(日)十三日(月)
勝馬投票券、單勝、複勝共二圓
主催 社團法人 平南レース俱樂部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는無料로巡査試驗問題集等三冊無料進呈
京城府永樂町二丁目 朝鮮警務學會 (規則書卽送) 電本三〇三〇番

實踐簿記專修學院
◎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五月十三日(第二部中組)
第四五回 生徒募集
◎學則要二錢切手 校舍大擴張敷地六百有餘坪及運動場千五百有餘坪 마음대로運動하게됨 京城黃金町六ノ二三二(電本二一六〇)

校舍擴張 京城實踐簿記學院 タイピスト女學部 生徒募集
(晝夜)商業專修校〇本科三個月速成科六個月〇就職斡旋、新學期開始
(學則要郵券)電車割引有●大平通大漢門橫入(電本三三九四番)

遞信官吏가되는法
合格하라。●見本과規則無代進呈◎東京市牛込台町日本遞信敎育會
本校卒業十四歲以上二十歲까지의靑少年은全國遞信講習所에受驗合格되여官費로工夫一年卒業直時郵便局員이되는本會의講義錄으로工夫하야受驗

街頭에서 여름消息!!

래일로닥처온 새명절어린이날

오전열한시휘문운동장서 팔천여명이회합

어린이의 새명절로써 온세상이기대리든 어린이날은 드듸어내일로 닥처왓다 전조선각지는 물론해외각처동포들도 총동원으로 성대히 긔렴할것은 물론이어니와 경성시내 시외의어린이날봉축은다음과가튼 사항으로 거행하게되어 당일의장관은 예년에비할수업슬마큼 크게 성황될줄 예상한다

▲祝賀式

▲五月五日午前十一時正刻於徽文高普校運動場 市內市外少年團體關係團體五十餘個所總集合、約八千名

▲記念式順

司會 元裕珏

一、開式(1、喇叭2、奏樂)

一、어린이날노래合唱 一同

一、式辭 鄭成昊

一、祝辭 三新聞社長

一、少年少女宣誓文朗讀 少女中

一、優良少年少女表彰

一、어린이날노래 合唱

一、閉式 (어린이날萬歲三唱)

▲旗行列

每團體를 一隊로하야 二十餘隊 每隊五十名에 監督者一人式을두고每組前列에少年軍一名式을세워 約百二十組六千餘名과 數隊의 樂隊와 數十名의喇叭手로써 行列을組織함

▲祝賀集會

▲五月二日부터四日까지三日間續所中央基督會館에서 어린이날祝賀大會 ▲五月四日午後八時場所昌信幼稚園 主催朝鮮少年軍七十一虎隊同十三虎隊 信友會少年部

▲記念童話會

▲五月五日(旗行列後)天道敎少年會主催講演會 場所昌德宮苑又는天道敎紀念館

▲同日午後七時半 文化學院主催로同學院에서祝賀童話會 ▲同日밤八時 昌信公普校庭에서信友會 朝鮮少年軍七一及一三虎隊共同主催로

▲活動寫眞大會

▲同日午後八時 新明學院에서新少年軍本部主催로

▲祝賀餘興會

▲同明日밤午後八時 公會堂에서朝鮮少年軍三十九虎隊主催로各學院出演아래祝賀餘興의밤

▲五月六日午後八時 天道敎紀念館에서 天道敎會本部主催로 歡安活動寫眞會

▲提燈行列

오월륙일밤에신당리 신명소년군(新明少年軍)과천도교소년회(天道敎少年會)등에서는 제각기봉축을가지고부근지대를 단이며 봉축의제등행렬(提燈行列)이 잇겟다고

具體化된補助警察 總員廿萬名豫想

保安組合、消防組、青年團等橫斷的組織

注目되는警察外廓의强化

경찰기관의 보조적협력할 소원민중 보조경찰조직에 대하야는 작년봄이래 경무국에서 조사연구중이든바 민중보조경찰 조직을특설하려면 경비상의문제도 곤난하며 또여러가지문제 즉조직권한등에관한문제가 잇슴으로 괴설각종긔관을리용하야 이것을 잘동원하려고이미보안조합(保安組合)소방조재향군인청년단수방단(水防團)등의여러단체를살통제하야횡단적(橫斷的)련락을 긴밀히 하게하며 경찰서장지휘하에 관내 전긔간단체의련합연습(또는경찰부장지휘하에전도내의 련합련습을 실시하야비상시의 동원)는물론 대규모의 범죄수사에 동원하는등 경찰상의 보안,치안,수사각방면에리용할려이라는바 그수는오만명의 소방대를 비롯하야 재향군인 청년단,소방단 또는보안조합 등등을 합하면 전조선에이십만명을동원할수잇게 훈련한다는것으로이것은실로전조선이만경관의 십배에 달하는거대한수로 확충되는현조선 경찰조직의외곽조직으로서의 민중보조 경찰조직의구체화는비상히주목된다

列車에二名死傷

사일오후일곱시이십삼분에부산행특급「노조미」호가경부선추풍령 직지사(秋風嶺、直指寺)간 부산긔점이백칠『키로』부분되는 신촌(新村)터널입구에서조선인남자 한명이뛰여드는것을 급정차 하얏스나 밋치지못하고 즉사하엿는데 이까닭에긔차는 현장에서 구분동안정거하얏스며 신원과기타는 불명하다

동일오후 한시삼십일분에 대구(大邱)를 처음떠나서 부산으로가는제구백사호렬차가삼랑(三浪)역을 발차하얏슬때에 어린계집아이를업은 조선부인한명이 뛰여올르려다가 떨어저서왼편다리에 전치이주일동안의큰타박상을입엇다

千年古刹芬皇寺 昨夜八時頃全燒

猛焰炎에싸여二人燒死三人重傷 負傷者는全部危篤

【大邱支局電話】 사일밤여덟시경에경상북도 경주군 내동면구황리(慶州郡內東面九黃里)에잇는 분황사(芬皇寺)법당안에서 놓은공양대(供養臺)의 촉불에서 불이일어나서삼시간에전건물에돌라부터전소되엿스나마츰내공양와잇든녀자한명과 남자한명의소사자(燒死者)를내이고그외 주지(主持)한사람과 소방수한명과 녀자공양객한명 등도합다섯명의 사상자를내이고 건물을전소식인다음 동아홉시십분에 진화하얏는데 부상자는모다중상으로 방금 경주의원(慶州醫院)에 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위독하며 손해는 동사가고적인만큼 십만원이상의 평가(評價)가되나 실지피해는 아직조사중이다 전긔 분황사는 신라선덕여왕(善德女王)때에 설립된것으로 석탑(石塔)이 가장유명하야 세상에저명한사찰이다

(사진은 분황사 구층탑)

該當한法規업서 銀密輸取締難

滿洲國으로서는非合法이나 朝鮮서는禁制品아니다

작년말께레 은괴(銀塊)가 만주로부터 조선에밀수입 되기시작하야 최근에는 은가의폭등에따라 안동현(安東縣)으로부터 신의주(新義州)로건너오는 은괴는막대한수에 달하야 만주국세관측의 취체가극히 곤난할뿐아니라 만주국재정에도 위긔(危機)를 밋게하기쉽다하야 총독부에서는 세관경찰등의긔관을 동원하야 당연은괴밀수입의 취체를 하게되엇다 함은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대책의 방책으로 이외가련 경성은 하엿스나 총독부에서 그러면 은괴의 밀수입을 어떠한 법규에의하야 취체할것인가가 큰문제로 만주국으로 보면 은괴의 조선류입(流入)은밀수출이 되나 조선측으로 보면 금제(禁制)품이 아니니만치 이것을취체할 아무법률적근거도 업다는것이다 그럼으로 결국총독부에서이것을 취체한다하여도 만주국세관리와경관의 밀수출취체활동을 안동에잇는 일본관리가 응원하며 또조선측에서는그들만주국관리의 취체활동에 편니를도록 하는외에길이 업다는바 그러나총독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취체할묘책이나 업는가하야 방금 연구중이라한다

漁撈場찻든窮民 十二名行方不明

白米실은배타고일터차저가다 松禾郡雲遊面龍首浦에서

【豊川支局特電】 황해도송화군운유면룡수포(松和郡雲遊面龍首浦)에서 지난이십사일 오후아홉시반에범선한척에 선원두명과 송계열명이타고 백미열아홉가마를 실고 풍천초도(豊川椒島)로 향하야 출발한이래 소식이업서 송계과선원들의 가족들은모다초도해안에쪼처와서 섬사람들에게 시체나마차저달라고 우는모양은 참아볼수업는현상이다 그런데 전긔송계열명은 전부초도에잇는 어업자길야약송(吉野若松)의 어장(漁場)인부로채용된다는 약속하에 초도로가게되야 어장으로 가든불시빈곤한 사람들이다 그들의생활은 자못궁핍하야륙지에서는남의소작도할수 업는형편으로그들은새생도를개척코저열명이한동행이되여섬에가면얼마나생활이나아갈가하야서로 의론하고그의가족들에게는섬에가서돈을만히벌어오다고하고눈물을 먹음고작별하고전긔룡수포에서작은거루시배를빌어 어장으로 가든길이다 큰배는선가가 빗사기때문에 작은배를빌엇든데다가 어장으로가는백미기때문에 위험할줄 알면서 열아홉가마나실코가서 더위래하게되것이다 일행열세명중 세명은 그배를타지안코 진강포(津江浦)로돌어와서 무사히어장에도착하고 열명과 선원두명은전긔와가티 행방불명이되것이다 사일오후열시까지 그배에 탓든사람중수소씨명이판명되이는다음과갓다

松禾郡下里面安鳳里 趙榮根

同 李錫九

同 金漢燮

同 李勇雲

同 李唯九

松禾郡雲遊面龍首里 趙光三

同 崔末京

飛行家愼鏞頊氏 空中結婚式擧行

五日汝矣島서

일등비행사신용욱(愼鏞頊)씨는최덕선(崔德善)양과명오일오후한시여의도(汝矣島)비행장에서 리륙(離陸)하야 한상룡(韓相龍)박석윤(朴錫胤)량씨의 주례로 공중결혼식을 거행할터인데 식을마친다음에는 동오후세시부터돈의동(敦義洞)명월관(明月館)에서 피로연을하리라한다

殊常兒屍는墮胎屍

사일오후네시경에 광희문(光熙門)외 수철리(水鐵里)에서 영아시체하나를 통행인이 발견하고 본정서에 계출하여왓는데 동서에서는 즉시계원이 현장에출동하야 흡은다살이나 아닌가하야 그영아의 신원을탐방으로 조사한결과 드듸여 시내 초음정(初音町)사십이번지 김경석(金擎錫)의 처 허성녀(許姓女)로판명되엇는데 허씨를 란타하야 드듸어낙태하얏는데 이번지 김경석과 그의안해와 또그의 어머니 조정숙(趙貞淑)이 경석은 지난달이십일일에 그의안해 허씨와부부싸홈을 한것해안해 가공모하야 암장(暗葬)해버린것이라한다

花街에暴漢

삼일오후여섯시경에시내병목정(並木町)팔십이번지 동심루(同心樓)라는 유곽에 쪽한한명이 침입하야 동루창기차봉련(車鳳蓮)외삼명의 창기에게 무단히 폭행을가하하고 폭행인에게 닥치는대로 폭행을하다가본정서원이 이를인치하려하자 또경관에게달려들어 경관의입술에 렬상(裂傷)까지입히고 끗끗내 야료를계속함으로 수명의경관이 협력하야 겨우그를붓서로 인치하여가는데 그는 신정(新町)사번지장석영(張錫永)(二一)이라는불량배라한다

全市商民總動員 明日兩大運動會

南大門市場은東大門外殖銀運動場서 商工聯合은奬忠壇서

전경성안에잇는 상공시민이 하고잇는제구회전경성상공련합운동회(全京城商工聯合大運動會)는 드듸여오일에 신록이무르든 장충단(奬忠壇)운동장에서성대히 거행키로되엿는데이날아침아홉시에는 먼저광고의장행렬(廣告行列)이잇서 광화문통(光化門通)네거리를출발하야 종로통을어동대문으로돌어 경긔장인 장충단으로향할터이며 열시부터는 입장식과 개회식이잇슨후순서에딸아 일반경긔가 시작될터인데 각상점을 대표한선수들은 각긔 자긔상점의 영예를위하야 룡감히 활략할터이라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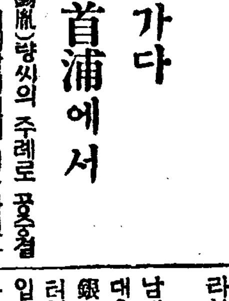
남대문시장(南大門市場)상인련합대운동회는 동대문밧식산은행(殖銀)운동장에서 오일오전여덟시부터열이게되엿는데 먼저 선수들의 입장식과개회식이잇슨후순서에딸아일반경긔가전개될터이며여흥으로는조선권번(朝鮮券番)기생들의 무용이잇다고한다

日本地質學會總會

일본지질및 일본암석광물광상학회의총회는사일 오일 량일간 시내 장곡천정 치과의학전문학교 강당에서 개최하는데 사일은오전 아홉시에 총회를 열고회무보고、평의원선거、학술장려금증정등순서로진행하고 오전열시부터 강연이잇고 오후여섯시부터는 조선호텔에서 간담회가잇게되엇스며 제이일인오일은 오전아홉시부터 강연회가 잇기로되엇다 한다

李貞淑女史長逝

淑明女高에廿九年間校長 四日午後一時自宅에서



사일오후한시오분 부내수송동(壽松洞)숙명녀자고등보통학교(淑明女高)교장 리정숙(李貞淑)녀사는 칠십칠세를일긔로유암(乳癌)으로 통동(通洞)일백사십사번지자택에서 서영하엿는데 녀사는 조선녀교육계의선구자로서명치삼십구년에 지금숙명녀학교전신인 명신녀학교를창립하고 그교장에 취임한이래 이십구년동안꾸준히 그학교의교장으로 녀자교육을위하야 헌신하여오신분이다

시골손님노리는 마루이지패검거

어리석은 향객을노리고 대로상에서공공연하게 돈을편취하든『마루이찌』패는 최근시골관광단의상경을절호의긔회라고 더욱더욱 발호하야 강제로돈을 편취하는 일도잇서서 그피해액은 상당한 모양임으로 시내동대문 경찰서에서는 이들의체포에 로력하든중삼일오후세시경에 종로사정목에서 마루이찌 도박현장을 습격하야원적광주군(廣州郡)현주시내 합동(蛤洞)에잇는 권천수(權千壽)(二五)를 붓들엇다 취조의결과는 그들의일당련루까지검거를보게될것이라한다

僧房에情炎悲劇

多角愛를淸算못한남어지에 青春男女情死飲毒

잠자는 만뢰(萬籟)와 는울린 야반의절간에서 뜻대로되지안는 이승의사랑을 저승에서나 매즈려고하야 정사(情死)를 계획한젊은남녀가잇섯다 사일새벽세시경에 동대문밧영도사(永導寺)에는 두남녀가놀라와서 끌방에서 음식을청해먹드니갑작이그방에서고민하는소리가 들리므로 절사람들이쪼차드러가보즉 두남녀는 모다다량의양잿물을먹은것이 알려저서 곳자동차로 시내종로삼정목정구충(鄭求忠)병원에운반하야 응급치료를가하는중이나 다시회생할 희망은업다고한다 그들은시내익선동(益善洞)일백륙십삼번지의 삼십이호에 살면서 앵정정(櫻井町)이정목삼십사번지강전(岡田)세탁소에서일보는 로종국(盧鍾國)과 그의 첩류도운(柳道云)인데두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삼년전당시여자는 전매국에댕기고 잇슬때에서로 사랑하는사이가되여 사나히는 그 고향인김화군원북면 주의리(金化郡遠北面)이백륙십이번지 본집에안해 박씨(朴氏)와 첩 리씨(李氏)가잇슴에도불구하고 결혼식을거행하고는 살림을시작하엿다고 한다 그리다가일년쯤전에 시골잇는 본처와첩이갑작이 박람회를구경한다고 처음으로상경하야 모다한집에 살게되엿다고 한다 이에류도운은 아모래도이러한 기형적인애욕생활은 오래계속되지못할것을 깨다럿스나 사나히에게대한 애정은또한 단념할수업서서 밀경자식까지하나식 나흔본처와중간첩보다는 자기가 차라리 죽어서 몸을해결하겟다고 마지막으로 가볼작정으로 사흘전에신설리(新設里)에잇는친정으로 도라갓다고한다 이를안사나히는 류도운을 차저가서 이틀동안이나 공원과 시외로 다리고다니면서 마음을돌리도록 온갓말로 위로해보앗스나 여자는 도모지죽을뜻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사나히도 죽으려고한즉 이번에는녀자가『당신은부모와 형제와 자식들까지잇는 몸이니죽어서는못쓴다』고말렷다고한다 그러나사나히도역시여자를따라서죽을결심을 풀지아니하므로 필경두사람은 정사할계획을세우고 사일새벽에 저승행의자동차를 영도사로달려서 절어구가개에서 양잿물을 사가지고절에드러가서는 김치에 약을싸가지고서로입시에 삼켜버린것 이라고한다

(사진은 두남녀)

夏節洪水防備로 水防團編成토록

水防團規則을發布

매년하절에는 삼남지방을 비롯하야전조선각지를 엄습하는 수해를경계방비하며또수해가잇슬때에는곳출동하야 피해의 확대를막지하고저 총독부에서는 수방단(水防團)의 조직을편할작정이라함은 루보한바와갓거니와 이에관한 수방단규측이 부령제륙십구호로 사일에발표되엿다 그내용을보면 도지사수해의경계방어를위하야또는 신저에의하야지역을정하고수방단을 설치 할수잇게규정하야 단장부단장반장수방수(水防手)등을임명하야 각지임무에 종사게되어잇스며 수방단은 일년에한번 이상연습을하는외에 경찰서장은 필요에의하야는수방단에 대하야 수해이외의재해즉지진화재 또는기타 보안상의경계방위상 출동을 명령할수잇게되엇는데 수방단의 비용은부읍면(府邑面)에서부담하기로되어잇다

農事試驗場移轉【大邱】

대구부외원대(院垈)에잇는 경상북도농사시험장(慶北農事試驗場)은수리의불편함과용지의부족한관게로 부외동촌(東村) 해안면립석동(解顔面立石洞)에 사만육천이백칠십이평의토지를매수하여이전하기로되야 륙월초순부터정지(整地)에 착수하기로내정되엇다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 日本東岸으로부터朝鮮에 擴大되고잇는데 그勢는 弱하다 低氣壓은 琉球와 北沿海州에잇다 北東部는개이고 其他는 흐리고 京城에는 小雨가잇섯다 氣溫은釜山의十四度와 中江鎭의 零度間에잇다 明日은 흐릴터이다

昨日最高 十八度六
・最低 七度九
今朝最低 九度六
今日正午 十五度六

陽春이일쪽차저온 四月의好天候

중부이북엔비가적엇다 仁川觀測所發表

총독부관측소(觀測所)의발표에 의하야 지난사월중의 긔상(氣象)을살펴보기로하자 최근일귀는 사월에들어서 전조선 각지평균긔온이평년보담 약일도가량 고온을유지하엿섯는데 사월중의 최고긔온은남조선내륙(內陸)에서는발서 이십칠팔도를 보고강릉(江陵)부근에는 척량산맥(脊梁山脈)을넘어오는 열풍(熱風)의 영향으로삼십도의 고온을보히는 이상을정하엿섯다 앵화(櫻花)도 일반으로십일가량빨리 피엿고인하야 꼿을따르는봉접(蜂蝶)의 자래로평년보담빠르며 일체의생물 현상이례년보담압섯다 매일의긔온은 대체상순(上旬)의후반과 하순의 가운데에고온을보혓다

病弱體에는먼저食慾을

食慾減退의原因은 비다민B_1가부족한새닭이다

麥酒酵母는비다민B_1의진국이다

밥맛이엇재서업게되는가

구미가돌지안케서 잘식사를못하시게되면、몸은 점々허약하야저가며 병에걸니기쉬웁고 더구나 병석에게신분은 이로하여금 더욱々하여가며 열니회복이안되게됨으로 엇더케하여야 입맛이나서 자양분을잘잡수실수가잇슬가하는것이 일반처로가의고심하는바이엿겟스나 그원인이쌀밥을 먹는인종(人種)의특증으로 비다민B가부족한 싸닭임을 권위잇는영양학자들이 증명하고게신 바임니다 그럼으로 그치료에는 비다민B가게 일만히포함되여잇는 麥酒酵母라야만된다는것이 명확하게되엿슴니다。

음식을보기만해도구여질

반찬탓하는어린애는 점々식욕을일케되야 영양부족이되기쉬운데 이런때麥酒酵母에비오스를연복식히면 차々회복되여 밥도잘먹게됨니다 또한 만성위장병 혹은 입원환자의게 소화안되케하랴고 밈、죽、우유만줄때 점々구미만떠러저 음식물을보기만해도 구역질을하게되나니 이런때에 에비오스를석거서드리면 병에대한저항력을돗아줄뿐만아니라 모든음식물을잘잡숫게되야 속히몸이회복됨니다。

병을곳치려면…먼저 위장을 튼々히하자!

麥酒酵母에비오스가 엇재食慾減退症에대하야특효가잇느냐하면 비다민B가부족할때는 위장의활동력의약하야저서 몸전신에고장이생기는것이나 비다민B의진국인 麥酒酵母에비오스의힘으로무엇보다도 사람의게필요한 위장의활동력을 돗아주는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만성위장병에、소화불량、편비증에、각기중에、주체、쇠약증、젓안나오는데 에는 무엇보다도 제일신효한효능을가지고잇슴니다。

藥用에는 엇재서 麥酒酵母라야만되는가

食慾減退의원인이비다민B의 부족으로인한줄을 안이상 비다민B의진국인「에비오스」가 제일인것이증명되며 日本藥局方의藥用酵母의條文에도 그원료가반듯이麥酒酵母라야만된다고明記되여잇는것으로도 잘아실줄밋습니다。

エビオス 에비오스

삿보로・아사히 유니온・에비스 麥酒釀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定價 一二〇〇錠 [illegible] 一〇〇〇錠 [illegible]

此外粉末도各地藥房에잇슴

통지하시는대로시용약을 東京田邊商店에서진정함

馬越農學博士指導 橋谷農學博士監製

EB-K-3

서울各幼稚園巡禮

◇麻浦幼稚園

한강물우의 그윽한 한곳에잇는 마포유치원(麻浦幼稚園)입니다。우리는 가슴에 강바람을헤치며 추위에 백사청송(白沙靑松)이 느러잇는 서쳔여름의 시원한맛이 스사로 흘럿슴니다。

사진을박히자고 선생님이 갓갓으로 한사리에모아노흐니 두터워가는 도약볏살에 눈이저절로 찌프려집니다。그래서 우리도 얼는(찌각나)하고도라나왓슴니다。

이유치원은 원아가 사십명인데 당일출석수는 삼십명이고선생님은 조경희(趙京姬)씨한분이시라고합니다

◇輔仁幼稚園

벗이되면 서로어질게 한다는 일홈도조흔 부인유치원(輔仁幼稚園)입니다。부인학교와 한집안에잇느니만치 형제가티 의가조흡니다。그래도 사진을박히고나오려니까 막、첫시간을파하고나오는 한떼의 형님학생들이 몰녀와잇습니다。이 봉시에드린온 강렬의 칭입자(?)들이 흠은 그네스에、흠은 밋그럼하는대우에 달려드렷습니다。갓갓으로 갈려재치고 난아세운것이 이만쯤 되엿습니다。

이유치원은 원아수가 삼십오명인데 당일출석수는 삼십삼명이며 선생님은 문장희(文章姬)、김원경(金元卿)두분이라고 합니다。

◇紫霞幼稚園

여긔가 자하유치원(紫霞幼稚園)입니다。오월단오도 래일이니만치 매일잡는 그네스줄도 새삼스러이 풍치잇서보입니다。그러나 그네도안저서타는것은 그다지 재비가티날새지미는(?) 그냥 그네우해서서잇는것은 엇질엇질한 모양입니다。그런데다가 엽헤섯는 짓구진친구는 일부러 그네스줄을흔듭니다。흔들흔들하 [illegible] 오 [illegible] 교 [illegible] 이러케들 너섯는것은 누구든지 재차례도 라오기를 기다리는것일까요?

이유치원은 원아가 사십명인데 당일출석수는 삼십륙명이고 선생님은 류호진(柳好眞)씨한분이시라고 합니다。

사진—상마포、중보인、하자하。

家庭메모 어린이날을마지면서

키엽다귀엽다말고 어린이를소중히역이자

내물건으로아는것이원체잘못 조흔동무로대접하라

매년오월ㅅ달 첫공일、금년은 오월오일、천중의가절이라고하는이날이 올해의「어린이날」입니다。칠백만 소년소녀의 그지업시커오르는 생명의싹이 이해에도한층더 자라나지이다。

그러나 어린이의세계는그대부분이 가정이라는데 그반이잇는것이며 또한 그일상에처할모든

사회적생활의

가장 첫출발인가정의 생활이란 어느의미에잇서서 가장 중대한 시긔이라고 하겟습니다。그럼으로 부모되시는분의 어린이에대한책임은 결코자긔 자식에대한 부모의책임이 아니고 왼사회의 새로운일꾼을 가장 주요한시긔에맛터본다는 사회적책임이잇는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장중심(家長中心)의제도이엿든만큼 모든생활의표준이 어룬의게 잇섯습니다。그래서 어린이는 언제든지 어룬의맛헤잇는것이며 또한 어룬의 식히는대로해야만 할것으로 알어왓습니다。그럼으로 어린의천분이나

개성이자유로

히발전할수업시되고 다만 어룬의뒤를이어 어룬과 어린이가갓흔전청에서 면면이계속되여 왓습니다。그러나오늘날에와서이러한사실을생각한다면 얼마나무서운일이엿스며못그러운일입니가? 인류의력사는 항상 미래를향해나아가는것이며 미래의주인공은 어린이이것입니다。그럼으로우리네의 대대로 이어나가는어린이는 실로 우리력사의주인공이며 사회의새로운일군입니다。그럼으로 첫재 부모되시는분은 자녀의게대해서 내자식이라는

개인적관렴을

가지지말고 사회의어린이라는생각을가진다면 감히 엇지 어린이를 구박하거나 정시할생각이나겟습니까? 그뿐만아니라 어린이의 천진하고 순진한마음은 그대로두어도 이우주간의 모든 복잡한여상에 대해서 끗업는흥미와 예민한감수성(感受性)이잇습니다。그러나 사람의천성이악하지아니한만큼 이러한 어린이가 혹 잘못되는길로 빗드러가게 된다는것은 리치대로생각하면결코 그어린이를 제대로자라나게 방임하는데서 원인한것이아니고 도리혀 어린이의

행동에대해서

어룬들이 잘못간섭을하는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우리네의 모든사회적조건으로생각해보아 어린이의행동을 절대로방임할수는한나는것은 오히려곤란한것입니다。그러나 그럿다고해여서 어룬들이 수다스러히간섭을한다는것은 도리혀 더일층위험한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간섭과 방임사이에 부모되시는분은 매우 주의해서 될수잇는대로 어린이의자유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항상조흔동무로서 잘못되는일은 충고하지아니하면 안되겟습니다。

지금에와서는 일반가정에도

비교적 어린이를존중할줄아는것이 점점늘어가는것은 매우깃분현상이남아 어린이를존중하는것과 녯날에 어린이를귀애한다는것은 다른것입니다。녯날이라고 어듸 어린이를귀해할줄이야 몰낫겟습니까마는 녯날에어린이를귀해하는법은 결코 어린이를존중하는것은 아니엿습니다。웨그러냐하면 그것은 어린이를 어룬의 마음대로만드기위해서 귀해한것이엿고 결코 어린이의자유를 존중한것은아니엿습니다。

그럼으로 어린이의 건강법이나 조흔습관갓흔것은 전연이저와습니다。

그럼으로 오늘、어린이날을당해서 우리는 다시한번 일반가정에 어린이를 존중할것을 말슴드리는것입니다。

家庭메모 인두나다리미를 녹안나게하는법

인두라던지 다리미에녹이나는것은 가정부인에게대해서 여간 귀찬은일이아닙니다 아모리갈고 또가려도 뒤에녹는 녹대로작고만생겨납니다 그녹을업시하려면 인두나다리미를 잠사불에좌여 따뜻햇슬때 녹나는 곳에초(醋)를문대고나서조히로 싹싹문지릅니다 그러면 신통하리만콤 녹이업서지고 언제든지 유쾌하게 사용할수잇습니다 비단인두나 다리미뿐만아니라 어떤 쇠그릇이든지 닥근다음에 이가치하면 좃습니다

오늘은"어린이날" (五月五日)

—매년오월첫공일—

★「어린이」는 우리의「복덩이」입니다 이들을 잘키우지안코는 잘살수업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룬중심의 가정을버리고「어린이」중심의 새가정을 세웁시다。

★잘 살겟다고「귀신」을 위하지말고 우리의 복덩이「어린이」를 위합시다。

★굿이나 제사에 업새는 돈으로 우리의 압재비「어린이」를 가릅시다。

★「어린이」의 정신량식은 노래와 이야깁니다 늘 조흔동요와 동화를 들려주십시요。

★무슨 일에든지「건강」이 제일입니다 늘「어린이」의 몸을 보살펴주십시요。

★「어린이」를 늘 웃음이게 하십시요。그래야 몸이크고 생각이크고 긔운이 큽니다。

★한「어린이」를 잘보면 그어머니를 알수잇습니다。한사람의 조흔 어머니는 백사람의 선생보다 낫습니다。

少年小說 異域에픠는꽃 (十三)

崔秉和

홍수와 선저소녀 두사람은선저소녀가 미리 준비하야 두엇든 뽀트위로 줄을타고 내려왓다。그리고 선저소녀는 조끔도 허황대지안코 침착한태도로 뽀트를 저엇다 홍수는 배를타본경험이 아주업슴으로 그냥랑편뱃전만 단단히 붓들고잇슬수밧게 업섯다。

얼골에 수염이 더부룩하게나고 험상굿게생긴 러시아 사람들은 무어라고 한참 떠들더니 즉시 뽀트를 세척이나 내리엿다。이때 홍수의탄뽀트는 화물선에서 조곰식 머러저가나 원체 기운이약한 소녀가 젓는것이라 물과 멋간동을 떠러지지 못하엿다。

홍수는 뒤를도라보니 벌서뽀트한채가 쫏차오고잇다 그리하야 홍수는 선저소녀를보고

『빨리 빨리 저어요』하엿다그러나 선저소녀는 벌서 힘이다하엿든지 노젓든 힘이 몹시약하야젓다。이과회를 놋치고 또다시 러시아사람에게 붓잡히다면 이제는 죽처럼하야서는 도망할수가 업슬것을 생각하고 홍수는 몹시 안타가웟다。그리하야 러시아 사람에게 붓잡히게되면 물로 뛰여드러가리라 생각하고 연해연방 뒤만 도라다보고잇섯다。

러시아 사람이탄 뽀트세척은 차츰가까워젓다。맨아페서운 뽀트에서는 밧줄을던지면서 홍수를 얼그려하엿다。그러나 홍수가 날새게 이리저리 몸을 피하기 때문에 얼키지는아니하엿다。그런데 이제는 다른 뽀트에서도 밧줄을 던지여서 피하기가 어렵게 되엿다。

아조 홍수와 선저소녀의 신변이 몹시 위험하야질 이때 룡근이가 이술한소년일대가 배를타고 쏜살가티 달려왓다。그러드니 소년 십여명이 수영복만 입은채 일제히 물로 뛰여들어갓다。

『홍수야! 염려마라』하는 소리에 홍수가 자세히보니 그곳에는 두분선생님과 여러동무들이 잇섯다。일번갑브고밉던 감격되여서 홍수는 눈물만 핑돌고 말이나오지 아니하엿다。

물에 뛰여들어간 소년들은 물속으로 자맥질하야가서는 러시아사람이탄 뽀트를 일세히 띄밀엇다。그리하야 뽀트는 고만 어퍼지고 탓든사람은 물속에 빠서버렷다 러시아사람들은 조치에 뚜하지안흔 적이 나타나서 방해를 놀므로 몹시 분해하면서 그소녀들을 잡을녀고 하엿스나 그야말로 인어(人魚)와가티 해녀(海女)와가티 해엄을잘치므로 한사람도 잡지못하고 도리혀 자긔들만 몸을 흠벅먹고 허덕허덕거리고잇섯다。

이러는동안에 홍수와선저소녀는 허선생님이타신 모터-뽀트로 옴겨갓다。그리고 살류를 향하야 속력을내여 피하야 갓다。

이러하야 물근소년은 뭇하지 말을 드러자안코 홍수를구해내엿고 또 무지막지한 러시아놈들을 혼을 내여주엇다。쏙시원스럽게 원수를갑흔 조선소년들은 서로 박수를치면서 소리를질르면서 그야말로 개선장군가티 모터 뽀트를 타고 홍수가탄배를 조차가고 잇섯다。

어느듯 해도 누엿누엿 너머가고 저녁노을이 서쪽 하날을 피빗츠로 물드려놋코 배의왼쪽가 갓친 고요한 강우에는 물새가 갈을차저 날느고잇슬때이엿다。(계속)

鄭勳謨氏獨唱會

—四日밤公會堂에서—

녀류성악가로 이름잇는 정훈모(鄭勳謨)녀사의 독창회가 오는 사일 오후팔시부터 시내장곡천정 공회당(公會堂)에서 개최된다는데 반주는 박경호(朴慶浩)씨라하며 입장료는 보통원、학생오십전이라한다

曆

五月五日(日) 陰四月建辛巳(小)(三日) 辛巳·金·房·除

▲立夏 六日(陰四月初八日)

▲小滿 二十二日(陰四月二十日)

家庭醫學

자궁발육의가부

問 저는 금년 삼십이세의녀자이온대 십팔세시에 결혼하엿습니다 한번도임신을 못하야가정이 불화하고 세상이 비관됨니다 부인과전문의사에게 진찰을 바든결과 아무병도업고 자궁이 좀다른녀자보다 적다고하옵는데 자궁이 적어도 임신할수잇습니까 지금 발년동안이나 자궁발육주사를 게속적으로 하올는바 엇덜까요。 (大田一女性)

답 부인과전문의사의 치료를바드시면 그의사만을 신용하시고 치료를 바드시는것이 조흡니다 자궁발육주사를 만히 바드시면 자궁이커저서 임신할수가잇게되는것입니다。 (大學病院産婦人科 金鍾煥)

임신중의태교양영

問 저는당년 이십일세의녀자이오며 이달이임신 제칠월입니다 항상성교를 계속하옵는대 임신중성교를 하여도 태아에게관계가업겟는지요 자세히하교하심을바람니다 (一農村女)

답 임신의후반긔에는 별거하는것이조타고 하지마는 실행이곤난하면 적어도 최후이개월은 별거하지아니하면 조산되는수가잇고그러치안트래도 산후에자미업는병이 생기는수가잇습니다

유—모어小說 望夫石(三)

金熊超 作、畵

三寒四溫(三)

명례의 머리ㅅ속에는 시계의초침(秒針)이도라간다。

—일분……이분……삼분……

보통학교이학년생도라도 조히에 적은것은 읽엇슬만한네 남편은 아모런 리도업다。

—눈을 딱 감ㅅ고잇나부다 설마! 보고도 안본체 하는게지。나 가트면 개수작·마라ㅅ하고 소리라도 한번쯤 지르련만!

『가엽서라。화ㅅ병이 나시드니 글못보는 장님이 되섯구료!

내가 령녀ㅅ감은 못되지만 정한수를 떠다노코 신명께 기도를 드려볼까?』

상말로 약을 올린다。

『입두고 말못하는병에 눈까지 어두어 지섯스니 저를 엇더케해! 여봐요 정 말못하시겟거든 끙끙거리는소리라도 해보구료응? 속 좀 시원하게。아이구머니나 저를어째 귀마저 자섯구먼!』

본의는아니지만 멀정한 남편을 가진병신 다 만드러노앗다 이때다 막 이때다 어찌보면 콧등에안진 파리를 물리치는듯 남편은 조히쪽을 홱 잡아웅켜서 억개위로 내던진다。

오—죽엇든사람이 깨어나드시 이것도또한 기적이라할까?

아니 곱배팔이란 병신까지겸처어떠할까 미리 두려웟는지도모른다。

명례는 올타꾸나하고 한마듸터 느러놀까하다가 인제는자기혼자 내버려두고 하는 거동만 볼작정으로 자기도 누엇다。

남편은 종시말이업다。구든결심이고 무어고간에 뜨뜻한아래스목에 누은것만 장땡으로여겨 내처 잠들 눈치엇다。

—그러치만 좀 두고볼껄!—

에—라 나도 잘자리나 잡자—하고 다시 이러나서 미안한노릇이지만 자기혼자 이부자리를 깔고 그속으로드러갓다。

『아래목에게신양반 안녕히주무서요』

『……』

×

방ㅅ구들을미테서는 두고래에서 초저녁에 너은것까지 열ㅅ덩어리의연탄이 벌거케 다라 복구친다。저에는 암만 처때어도덥지안튼방이 불이낸다고 부넘기를고치고난뒤로는 밤짓고나서한고래에 두덩이식만 처너도 짤짤 끄럿다。—오늘밤 이방아궁이는 터업는 과식을해서 끄

불성도가아니요 글장도다。

재호는 한참드러볼까하고 눈을부처보앗다。그러나 행인지 불행인지 샤쓰를 새여드는 뜨뜻한기운이 아까와 달라저왓다。한참동안한편으로만 누어잇서서 방바닥에 맛다은 억개빼와 궁둥이가 제려오나부다하고 안해의 흰한납이 쉬고잇는틈을 기회로번드시 누어보앗다。두다리 오굼파히 근질근질한것을 풀것이오 르흑만낫고 굵어도보앗다。그러나 시간이 가는동안에 비로소 뜨거운것을깨닷고 땀나는것을아럿다。여니때만여여서

—이이상 더우려라고!

처음은 참어보앗다。

—불시 더운걸。오늘ㅅ밤은 이방이 웬일인가?

여전히 뜨겁다。

—뜨거운걸! 뭐나 좀까렷스면!

고집을 부리고 꼿꼿내누어잇든깐은잇서서 오목버리장우에잇는 요를 선뜻집어 흠종기는업

섯다。더구나 정압에 가로누은 안해의비웃는꼴을 구버보다니!

—더참어볼까 못참겟는데못참어!

슬그머니 약간자리를 웃목쪽으로 옴겨보앗다。

—벌무신통언데! 호듯하기는 왜이리 호듯해 비올날ㅅ신가부다!

시빨거케 상긔가되여 애꾸진 천기까지 탈을잡는다。

—어—뜨거뜨거!

뜨겁다는 비명을 금방토해낼것처럼 입을쭈삐—시 해가지고 몸을또좀 옴겻다。

—큰탈낫네!

더참을수업서서 또좀옴겻다。그리고 참을수잇는데까지 참어볼작정하고 바른쪽으로、왼쪽으로、바로、어푸리 기까지 하엿다。

—아모리해도 안저지대는못목이다! 그러나 벌서 한개의 물체가 점령하고잇지 안호냐! 옛날히랍(希臘) 학자의 원리(原理)가다나오는다

—그러나 부부는 경옥이일치할쑤……에—ㅅ 깨끗잔흔소리! 비루하고 치사스런 타협은실타! 재호는 뜨거운것도 뜨거운것이려니와 자기의몸이 어느겨를에간는지 안해에게 가차운것을깨다러다。

『에—ㅅ』

이것도말이라고할까? 말이라면 말로이비로소열린것이다。재호는 더참을수업다는드시벌떡일어낫다。

라듸오

四日(土曜)

◇午後六時 기타—獨奏 [illegible]

◇同六時三○分 兒童講座 [illegible]

◇同六時五○分 課外講座 地理 (三) 漢文高等 金 [illegible]

◇同七時三○分 趣音講話 [illegible] 講演 群山漁村振興 [illegible]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歌 申錦紅 鼓手 丁元燮

◇同八時三○分 楚漢歌外四曲 一、愁心歌 二、楚漢歌 三、山念佛 四、寒遊歌 五、夢金浦打鈴 金玉仙 長笛 高載德

◇同九時 플루—트와맨돌린合奏 京城맨돌린밴드

五日(日曜)

◇午後○時五○分 絃樂重奏 一、로—만스…모—차르트作曲 二、아나드라舞曲…그라—그作曲 三、칸쏘넷타…멘델스존作曲 四、미누엣트…보케리니作曲 延專四重奏團

◇同六時 童謠와童話 一、童謠 (가)合唱 어린이날노래 (나)獨唱 재비마중 (다)齊唱 1、失곰잡2、꼿3、너구나구들이서 (라)하—모니카合奏 1、하—모니카 2、반달 3、귀뚜람이 二、童話 韻소표등무 鄭成昊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至善을求하자 李 [illegible]

◇同七時三○分 歌詞 [illegible] 李 [illegible]

◇同八時 漫談 一、칼멘 二、아리랑 黃 村 景

◇同八時三○分 首陽歌外三曲 一、首陽歌 二、小春香歌 三、執杖歌 四、회모리 崔逆香 金泰運

◇同九時 獨唱과二重唱 一、獨唱(앤더슨) 完全한新婦 스텐손作曲 二、獨唱(李) 내게오라 계년作曲 三、獨唱(앤더슨) 아름다운樂園 리틀作曲 四、獨唱(李) 主는나의빗 앤더슨作曲 五、二重唱(李 앤더슨) 밤직히는자 사! 잔트作曲 六、獨唱(앤더슨) 지친눈 부래겟트作曲 七、獨唱(李) 내主를사랑할 테너 李宥鎬 바리톤 W J 앤더슨 피아노伴奏 J L 부—스

六日(月曜)

◇午後零時五分 映畵이야기 砲煙과薔薇 朴昌遠 音樂伴奏

◇同二時 家庭講座 兒童敎育과娛樂(一) 宋 今 璇

◇同六時 童話 李 定 鎬

◇同六時二五分 產業뉴—스

◇同七時三○分 講演 乳幼兒營養上의危機와그對策 城大病院小兒科 李 [illegible] 鳳

◇同八時 山念佛外三曲 一、山念佛 二、긴아리랑 三、긴난봉가 四、朴 [illegible] 作

◇同八時二○分 (東) 파이프·오르간獨奏—上野東京音樂學校로부터中繼— 一、드라이오·아리아…빠하作曲 二、英雄曲…프랑크作曲 三、칸타빌레…비도르作曲 四、大토카타…同上 木岡英三郞

◇同八時四○分 獨唱 一、女子의사랑과一生中에서 슈—망作曲 (가) 그이를뵈온뒤로 (나) 미더지자연허요 (다) 내손의반지여 (라) 가삼에안고서 二、歌謠 루치아中에서 도니쎄리作曲 狂亂의노래 鄭勳謨 피아노伴奏 朴 [illegible]

◇同九時一○分 時調와大笒散調 一、時調 (가) 平時調 (나) 역금 (다) 자룡 二、大笒散調 大笒 朴 [illegible] 長鼓 鄭 [illegible] 丁元燮

스피로헤—타는 跋扈!!

梅毒의싹이날時라 只今治療함이第一!!

梅毒、體毒이自己自身에잇서 얼마나무서운것인가。子孫에對하야얼마큼慘害를맛치게하는가。또엇더케하면이런病苦에서脫出할수잇슬가함은임의 論議檢討되고新聞雜誌에도每日과가티揭載되고잇다。그러나理論의時代는지내서實行이焦眉의急務다。

千萬言을費하드라도 無力한藥과目的에어긋난療法에만拘泥되고잇스면 何等의利益이업슬뿐안이라、도리혀病을 [illegible] 식힘으로 자미스럽지못한人生을보내게된다。조흔療法! 適當한藥! 이것을求하는것이目前에迫切한重大問題이다。

氣分조케 體毒을排泄한다

毒掃丸

독 소 환

梅毒治療에업서서는안되는 沃素療法

沃素는 驅梅作用으로써 [illegible] 醱化를旺盛히하고 甲狀腺內分泌液의 [illegible] 部分을形成하야서細胞의活力을增進식힘으로 第一、第二期等의 [illegible] 梅毒의硬結을軟化하고、病的産物을吸收하야 治癒를迅速케한다。

免疫素의增殖도 梅毒治療의要件

白血球內의 免疫素의增殖助勢와 體質의改善은 梅毒治療에特히必要한것으로 現在化學藥으로 不斷한 [illegible]

重症用毒掃丸

沃素療法上容易할수업는 最大의沃素劑와、貴重生藥과의合劑 [illegible] 東洋文 [illegible] 合沃素劑로서의名聲을博得하고잇다。

重症用毒掃丸 適應症: 初期梅毒 慢性梅毒 潛伏梅毒 先天梅毒 冷毒 小兒胎毒 / 梅毒性皮膚病 同內臟疾患 同神經痛 同루마치스 가래ㅅ톳、감창 惡性여드름 動脈硬化 甲狀腺腫

藥價 重症用毒掃丸 二圓、三圓、五圓 十圓、二十圓 三十圓 / 普通用毒掃丸 五十錢、一圓 二圓、三圓 / 小兒用毒掃丸 三十錢、五十錢 一圓

베인데와 입술의진무른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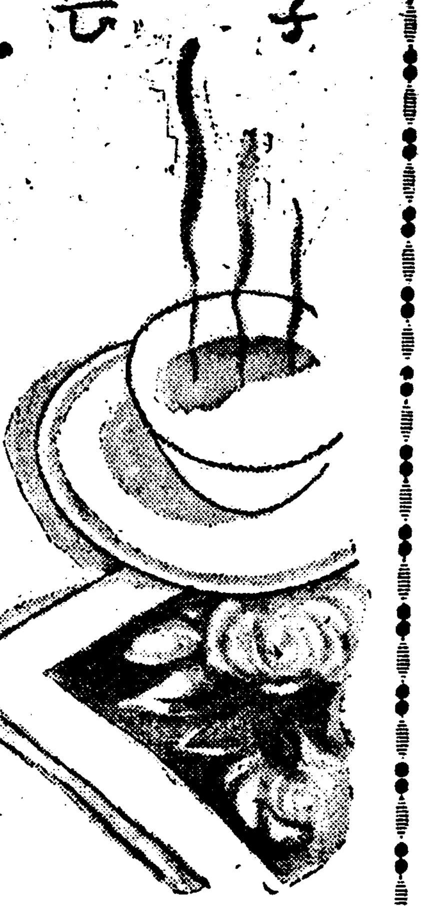
瘡滅散 そうめっさん

外用藥 三十錢·五十錢·一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製造發賣元 東京市神田區花房町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振替東京一四六七

學藝



文學上의自由主義
그概念의內包와歷史的任務 (上)

洪起文

年來에 이르러 全世界各國의文壇을 席捲하는 한개의 重要한傾向이잇다 그는 다른것이아니요 곳自由主義다. 政治上 經濟上乃至道德上으로 自由主義를 主唱한다는것은 決코

新奇 한現象이 아니겟지만은 文學上으로까지 自由主義를 標榜한다는것은 確實히 새로운 現象이라고생각된다 勿論劇詩의 뭇은形式을 打破하고 小說을지으며 詩의까다로운 韻律을 廢棄하고 自由詩를 告는다든지 文藝思潮 그當時의 그말을가저 表現하지안햇다. 그러나 自由主義란 어떠한方面으로 應用되든지를 不拘하고 이미 前世代의 낡은 곤연장임에 틀림이업다. 文學者들이 아모리가 才藝와 가진技巧를 다하야 버르고 또다듬는다고 한들 갑작이 그로서 새로운武器를 낸드는것은 不可能한일이다 여기서 歷史는 한바퀴를 거구로 돌게되는 同時 悲劇의 한場面이 열리지 아니치못한다. 오직 나사로가 저승으로부터 다시살아돌아온것만이 不幸이 아니라 自由主義가

過去 의時代로부터 다시 뛰어나온것도 確實히 적지안한 不幸이다.

×

그러나 同一한 江물은 두번 건느지못한다. 아니 同一한 江물이 萬一 이世上의 眞理라면 넷날의自由主義와 오늘의 自由主義가 어찌 同一할것가? 넷날의그것은 아프로나아가려는 原動力이엿던만 오늘의그것은 한갓 後退를 前提하는 保守에 不過하는것이다. 自由主義가 過去에 잇서 新興勢力으로서의 새로운 集團으로서의 光芒을 띄우고잇다. 그러나自由主義는 恒常抑壓이나 拘束을 必要로하는 反自由의 槪念을

前提 로한다. 自由主義도 反自由主義的 理論이나 行動을 豫想치안코서는 생겨날수업는것이 事實이다. 萬一 이것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넷날의 自由主義와 오늘의自由主義가 적어도 一脈의 相通을가지는것이 아닐가? 넷날의 自由主義가 封建的制度의 모든拘束과 阻害에對해서 抗戰하는것가티 오늘의 自由主義는 近來의獨裁思想에對해서 反對하는것이다. 그 反自由의 對象은 어떠케서로다르든지 自由의擁護만으로는 完全히 서로一致하고잇다. 即 自由를擁護하는데 잇서서는 今昔의自由主義가 同一한 點을보이고 歷史上任務로보아서는 今昔의 自由主義가 判異한點을나타내는것인바 이同異의兩點을 明確히 알아두지안해서는 種種의 認識錯誤를 이리킬

憂慮 가업지안타. 오늘의 自由主義를 前世紀의 構成로서 評價하려는 사람도 그조흔例의하나려니와 오늘의自由主義를 古人의 廢物로一笑해버리는것도 그조흔例의하나다.

×

勿論獨裁思想이라고하더라도그 中에는 左와右의두種類가 난호여잇다. 그두種類의 獨裁思想이 樣式으로나 體系로보아서는 根本的으로 갓지안치만 다가각自己의 階級의 利害를딸아서 一種의 統制乃至一種의抑壓을 要함에잇서서는 別로다름것이업다. 그러라면 自由主義는 左나右그어느것을勿論하고 다한께拒否하고排斥할것이아닌가? 左右兩者를한께물리치는것은

結局 그自體의 中間性을 意味하는것이 아닌가? 오늘날政治나 經濟로는 그만한中立의 緩衝地帶를 許諾할는지 疑問이로되 文學에이르러는 아조만問題다. 지금自由主義가 딴方面에잇서 그다지問題되지안는대신 文學에와서 問題되게되는것은 실상이러한 關係를 하얏다

小品散稿 題名 (六)

李殷相

저 秀麗한 山水間에 마음의淸淨을 어드려고 或 閑寂을 때우러 名山勝區를 찻는일이잇다 그러나 거기서도 人間의醜逆나는일을 보는것은 水石조흔곳마다 하나도업시 大小各種의 題名이 無數히 새겨진것이다. 우리는 저 金剛一萬을 代代的인곳으로 손님을수가잇슬것이다.

韓幷外人으로 國見이 넓지못하여 外國은 어떠한지 모르거니와 勿論 山水間에 題名하는일이 東西洋어느곳에나 다잇는일이라 할지라도 아마 朝鮮처럼 甚한곳은 업슬것이다.

나는 이것을 皮相的으로만 觀察하는者가아니라 여기서도 한개의 社會的 乃至 民族性的研究를 試驗할수가 잇지안흘까생각한다.

三百七八十年前 우리 明宗朝의人 魚叔權은 그의著 稗官雜記에 『東國이 不好事하야 비록名山勝地라도 아직 題名하는일이 업다』 하는말을 前提로하고 『저高峰三日浦의石壁에새긴 所謂 丹書六字가 잇슬뿐인데 그것도 실상은 後人의 追刻일것이오 眞筆이 아니라고 본다』 하엿다. 뿐만아니라 中宗三十二年(西紀一五三七)에 明의使臣龔用卿과 副使吳希孟이 平壤牧丹峰에 올다가 새겻다는 題石까지 眞跡이 아니오 後人의것이라고 魚公은力說하엿다.

換言하면 魚叔權은 在來로 朝鮮人은 勝地에 題名하는버릇이 업섯다는것을 絶對的으로 말한것이다.

傳說하되 伽倻山에 孤雲의 筆跡이 잇고 金剛妙香에 楊蓬萊의 筆跡等이 잇다한들 저 魚公의 意見대로 말하면 다後人의 追刻이라고 볼수밧게 업다.

또 設使 이를 事實이라 할지라도 그는 다 詩人이요 題名이 아니며 적어도 魚公의말이 當時까지에는 正確한 事實일것인만큼 우리는 山水間에 題名하는 버르쟁이가 李朝中葉以前까지에도 업섯던것을 알것이며 또 따라서 그 惡習이 一般的으로 成風되기는 下葉以來의 것으로볼수밧게 업다.

題名을 벗어나 簡單한 林泉을 찻는것은 一種의 風流心일것이오 구태어 남의눈에 잘드러나는곳을차자 제이름을 새기는일은 또한 一種의 愛名慾일것이다.

愛閑과 愛名이라는것은 互相模反되는 것이겟거늘 어찌하야 이런 矛盾되고 衝突되는 두心理의 混色을 보게되엿는가. 거기에는 確實히 커다란 歷史的社會的 原因이 잇지안흘수업슬것이니 果然 李朝下葉以來 政綱頹廢한 社會의 樣相이 거기에도 한머리 그림자져 잇슴을 볼수잇지안흘까.

朝鮮의 山水는 아름답다. 그러나 題名의 惡習이 朝鮮의 山水를 망친것이다. 나라이 어지럽고, 民心이 어지러우매 山水또한 健在하지 못함이던가.

比律賓群島의 人種別

政治的으로 問題되는 比律賓群島의 마닐라市에는 大體어떠한 人種이살고잇는가 最近發表의 마닐라警察部의 統計를보면 마닐라는 주허各人種의坩堝라는것을 알게되엿다 그런데그中에도 數로보아 斷然리―드하는것은 中國人으로 다음에日本人 아메리카人은 第三位다 一九三四年度의 各人種의色分은아래와갓다

中國人	二萬九千九百九十一人
日本人	二千三百七十四人
米國人	千九百五十二人
西班牙人	千七百五十四人
獨逸人	二百九十九人
印度人	二百二十三人
英國人	百八十二人
露國人	七十九人
瑞西人	七十六人
葡萄牙人	七十人
佛國人	四十三人
白耳義人	四十一人
土耳其人	三十二人
暹羅人	三十人

으로黃色人種이 壓倒的多數를占하얏다

探報臺 文人의飛行機

작베-드聯邦의「파-라-트」한 文學的功績을 讚揚하는 意味에서 飛行機「고-리키-號」를 製作하엿다 아마도 文學的功績을 이가티 讚揚하야 한 個의飛行機까지 製作한다는 文學史上에 업슬것이다

어떠든 나는하나의 文學從事者로서 이가티 文人으로서의 社會的待遇를 밧는데에 一種羨望과 一種自嘲의 感情을 感受한다

이제 이 飛行機는 乘務員二十三 乘客四十三 合六十六人을 搭乘할수 잇는것으로 時速은二二〇乃至二四〇키로 同一金屬性의單葉機라 한다 그런데 우리의興味를 끄는것은『飛翔하는編輯局』이라고할 編輯機가 裝置되어 잇서 이飛行機에서 印刷所의 輪轉機가 裝置되어잇서 一時間에 八千의新聞이 印刷된다고한다 그新聞은 物乃하지는 못하다하드래도 撮影까지 完全히할수잇는 키노・映畫 製作도잇서 撮影한映畫가 夜間에는 公開할수잇는 것이라한다 其他 二百의 人家잇는 都市를 비칠 照明을 가진 二百乃至六百燭光을 가진 『써-처라잇』下一千키로까지도 放送할수잇는 放送機, 寫眞室, 醫療室, 飮食室 等 一般文化施設이 完備되어잇다한다

이 新飛行機의 製作은 文藝史上에 새로운 試驗으로 그어느나라에서나 차저볼수 업는것으로 그러케 一般的으로 待遇를 밧지못하는 文人이 작베-드聯邦에서 最初로 이가티 文人을 爲해 飛行機까지 製作하엿다는것은 文學從事者의 羨望의的이 아닐수업스며 今後航空文學發達에 커-다란 功績이 잇슬것이다 (一步生)

映畫藝術의構成
그內容과形式問題에對하야

☆……6……☆ 朴基禾

그러므로 映畫製作에 잇서서 이러케 어든題材와 取扱方法은 民衆의現實에서 보기어려운 空想的 實現에 不過한것이 되고 만다.

다만남이보기에는 훌륭한 일을 하고잇는社會的人物일지라도 이아니될때에는 우리보다 數倍나더歷史를 記하고잇는것이다. 우리는貧窮에 조끼고 먹기爲하야는 別다른일을 할지라도 그런行動은 取하지안는다는 一種의自慰를 目的으로한 的構成法이엿다.

──◇──

도『글핑비아』에서 製作한『아메리카의狂亂』과 『메드트』作한『婦人軍役』等의映畫라도 이點을말할수잇다 아메리카의金融恐慌과『로칸』財閥의 不備等여러가지의 法律의 取材하엿섯스나 作品의構成에잇서서는 結局自慰的이다.

이態度는 商品映畫에 잇서서는絶對로超越할수업는 限界일것이나그러나싸벳트映畫에 잇서서는 不可能한 일일것이다.

싸벳트聯邦에서는 映畫를 製作할때 一般의大衆이 바다와山의映畫를 조하하거나 또는十八世紀의風俗映畫를切望하거나 그러한것은 映畫製作의『프랜』을決定할수업는것이다 (中略)

──◇──

그러면 다음은映畫의形成問題이오나 이는現下商品映畫로代表되는 아메리가映畫形成法은『곤티뉴-티』的 構成으로서 『몬타쥬』的構成과一般的으로 極히嚴格한區別的解釋이되야잇다

그러나 元來映畫構成에잇서서 『몬타쥬』라는것은 極히 單純하게말을하면 各個의撮影斷片에서한 映畫(全體)를 編輯하는것을 意味하는것이며 技術的으로말을하면 連結되어 필림에서 斷片의個所를切斷하야 그中의一部를버리고 再連結을식히는것이 實現되는것을말하는것이다.

──◇──

이에對하야서는『와시리엡』의 斷이明瞭하게 記述하엿에도 이『몬타쥬』發生에對한說明을引用하면 『와시리엡』과技術的『몬타쥬』手法開拓의 榮冠은 아메리카人이獲得하엿다. 『몬타쥬』로 場面의 繼續感을 주기爲하야 撮影斷片의技術的綜合手段으로서 最初이를應用한사람은 아메리카人이다―』라고 말을하엿스며 또 俳優演技의誇張的그릇과 特異的複製의『모멘트』를映畫藝術의基礎的要素로보드한 아메리카人은『몬타쥬』를 單只此等要素의技術的傳達과 綜合의機能으로보앗든것이다 獨自的藝術效果를 엇기爲하야 素材를組織하는『몬타쥬』의 自由的創造性을더욱認證하지안헛든것이다』라고말을하엿다.

──◇──

要컨대 아메리카人은『몬타쥬』라는것을 單只各個的斷片의『필림』을 連이잇게되는基礎的手段은 그斷片의『필림』의內容을 單純히 展示한것만이아니라 그것은 그斷片의相互的組織과 結合과 行立일것

理論을보면 그 對象이로된物體와 現實의 分析과그것을 構成하는가장主要한要素의 選擇이모-든要素의時間的인것과 空間的構成을『프로세스』라고하엿섯스나 이것을表面的으로 生覺하게되면 역시 아메리카 映畫構成에도 이것은 말할수잇는것이다 그러므로 外觀的으로는 兩者의 區別을機械的으로 論結할 수는업다

아메리카가映畫의構成은『크레쇼프』가말한바와 가티 商品으로서 機能을다하기爲하야 特殊한 發展을하고 잇는데 모-든特徵의根源이 잇게되는것이다

──◇──

商品으로서는 劇俳優 歸藥等 即畫面의 內容이 刺身表面으로나 오는것이며 또構成만이여도 最少의勞力으로 最大의刺戟과享樂을 주지안으면 아니되는것임으로 너머觀客의頭腦와感覺을 疲勞하게 하여서는 商品의價値를 喪失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理由로아메리가에서는 內容이表面에 나오게하며 그展開와構成에잇서서도『스므-스네스』를 理想으로하게되는것이다

이것은 形成의態度에 對하야서만 말할수잇는것이아니라 例컨대 劇의展開法에 對하야서도 그럿다. 即觀客의期待를 背反하여서는아니된다. 勿論衝突이거나 對立이업스면 劇이成立할수업스나 그러나最後의結末은 悲劇的終結을 짓는것이當然하며 自然的決定이라할지라도 結局『하피엔드』로하야 觀客의마음에『스므-스네스』를 주게되는것이 即 아메리카映畫의形成問題로서 重要히 取扱되야잇다.

──◇──

映畫를通하야 觀客에게 饋한『몬타쥬』는 即斷片의相互關係와 轉換이다. 그러므로『몬타쥬』는 觀客에게 煽動을주는 映畫的作用의 基礎的手段이아니면 안된다―고『크레쇼프』는 力說하엿다.

──◇──

『에이젠슈타인』도 이『아트렉순』의 『몬타쥬』를 한方法으로서提唱하엿섯다. 元來『에이젠슈타인』은 映畫를 一種의 情緒的活動의 『른나빠-크』로서『아트렉순』의『몬타쥬』에 依하야 製作된 情緒的活動의 結合이라하고 또配列이라고하엿섯슬뿐만아니라 觀客에게 事變을 傳하는 것보다도 어떤 感動을 注入식히는것이 映畫의 目的이라고말하엿다.

이러한 生覺은 勿論 極端에不過할것이나 萬一 어떠한 態度로서 全般을 支持하야간다면 작베트映畫의 任務라는것을 全的으로 遂行하기 어려울것이다.

―青空에나르는새와가치―
=五月의幻影=

新刊紹介

▲新人間 五月號 京城府慶雲洞八八 新人間社發行 振替京城一〇一一八番 定價十錢

▲朝鮮農會報 四月號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九五 朝鮮農會發行 振替京城三〇三番 定價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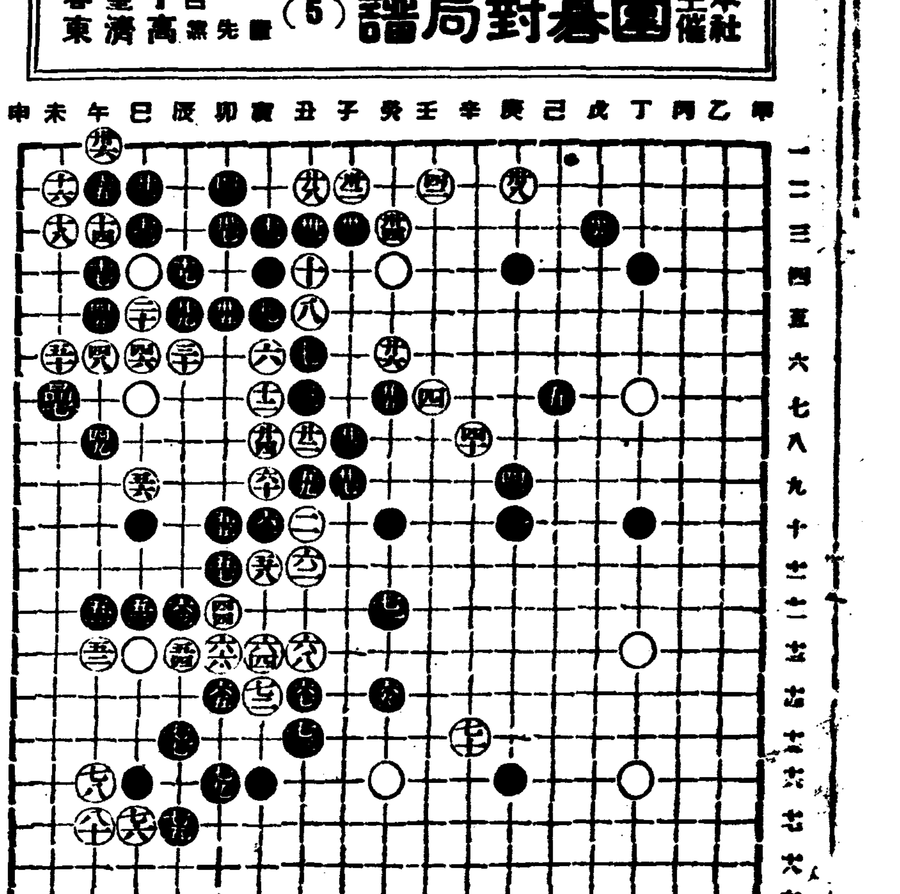
▲朝鮮醫察 第三號 京城府初音町一四四 朝鮮醫察新報社發行 振替京城一七七二六番 定價一個月三十錢(月二回發行)

▲崇實 第十六號 平壤崇實專門學校內 崇專學生基督靑年會文藝部發行 定價五十錢

▲大成時報 第四十號 平壤府鏡町一三 平南儒林聯合會發行 定價五錢

本社主催 圍碁對局譜(5)

白 丁奎春 先黑 高濟東



【●六五】卯의十四 【○六六】卯의十三 【●六七】丑의十四 【○六八】丑의十三
【●六九】癸의十四 【○七十】辛의十五 【●七一】癸의十二 【○七二】寅의十四
【●七三】丑의十五 【○七四】辰의十六 【●七五】辰의十七 【○七六】巳의十七
【●七七】辰의十五 【○七八】午의十六 【●七九】卯의十六 【○八十】午의十七
◎死點 【○七四】辰의十六

察極文氏評

黑이 白 包圍할 思想으로 卯의十四로 鋼點을 試하고 癸의十四, 十二로 列着하니 白이 辰의十六 巳의十七로 黑耳角 奪回한은 超過한 手段이다 黑白 場面이 均衡으로 轉在한 此際에 黑이 抽腹를 어덧스니 河溝 東西를 密密 觀察할 時機가 아닌가

五月의노래

☆ 李源朝

五月의 바람이부러옵니다.
훈훈한 五月의바람이
기름진 풀내새 푸른香氣우에
어머니 거룩가티 은근히부러옵니다.

五月의 볏살이흐릅니다.
잔잔한 五月의볏살이
금빗 어아리 새로고인 봄우에
은사실주렴가티 가늘게흐릅니다.

넘이여 그립가티고흔이때에
당신을 그리는 게으른생각을
나는 기리기리 머므르고십습니다

004240

엣세이(隨筆)와文學
隨筆文學發達을爲하야 (上)

姜漢仁

日前 新聞에 보니 佛蘭西의 大英雄『나포레온』의 愛書들이 세계에 보낸편지가 數十萬프랑의價格으로서 垂涎을 마지안흔蒐集마니아들을 물리치고 結局은 政府가 落札되엿다고 사뭇그럴듯한 國際뉴-스가 써잇섯다.

近二世紀를 經過한 오날에 나포레온이 이랫느니 저랫느니 궁철할아다 비석할 必要도업슬것이나 포레온이라하면 곳佛蘭西大制覇와 白雪을휘날니고 縱橫한알프스를 强襲하는 그의剛腹과 精悍한眉宇를 連想할수잇슬만지 公人으로서의그는 한개의常識的으로 되엿다. 그러나 公人으로서의 그에對한 우리의

常識 이 이人物을 知悉하는데 決코完全한 知識이라고는 할수업는 一面이엿스니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私人으로서의그다. 私人으로서의그는 적어도 우리의게는 完全한 未知의存在이다. 그러기때문에 그의日記 편지 手記等類가 今日에 잇서 重히녀긴所以다.

實로 吾人의 이英雄에 對한 知識은 다시말하면 佛蘭西政治史的으로 본 나포레온의 面貌로서 와 나포레온의 嫉情과 私心으로一生을 懊惱해본 一介匹夫로서가 아니엿다.

이것은 우리의 少年期를 憧憬으로서 誘惑는하엿지만 決코日常

茶飯 에 오고 부는 公的 知識階級의 結果이 라나지못한 結果이다. 말하면 우리와는 『퍼손날』(Personal)한 精神的交涉을 주지못한 原因이다.

이 公知識階級은 形式敎育의 産物로서 正常한知識의 發露를 阻害하고 異常한行動의 模倣으로서 豪傑的心理를 發生케한 根本原因이 되게한다.

우리가 奈翁에 對한 知識은 이 公的知識의 려바굴 버서나지못하야 그사람의 참된『퍼ー손날리티』는 探險할바 可히 업섯다.

歐洲 大陸을 超人的으로 몰니치든그가 婉婉한 루이저ー에게 도 偉丈夫 로서 對하엿섯슬가.

×

人間은『퍼손날』한 一面과 『퍼손날』한 一面을 具有하고自己의 歷史를 닥거왓다.

이二面이 病的으로 結合되면 二重性格을 보게되고 態度를 갓티하야 極端으로 分離되면 二個의 相反한 結果를 나케하니 後者에잇서서 우리가른 偉人 或은 天才라고 부르는 者의게서 그 例를 볼수잇다.

英雄奈翁은 그러이저ー의게 對할때一介의 懦夫에 不過하얏다. 英雄과 懦夫、同一한人間에서 보는 極端으로相反한 二個의 表現、前者는 歷史的으로본『퍼ー손날』한 表現이다.

表現 이며 後者는 人間으로서 본 『퍼손날』한表現이다. 歷史的으로보아서 一七九九年에 不即不離의 英雄奈翁을 理解할수잇는同時에 孤島의 非英雄奈翁도 理解할수잇스나 人間나포레온、懦夫보나팔드나는 理解할수업나니 永遠히 抹殺할수업는 一個의 固有最初의 表現이며 最後의 表現인 人間의『퍼ー손날』한 表現을 文學의 잔르의서 滿足을求하는것이 다른것이아니라 엣세ー ESSAIS...그것이다.

나는이와갓치 理解한다.

幻想

金哲洙

『예레ー지』를 읊조리는
구즌비 내리는 밤
떠나간 그이의
아롱진 幻想을
낙시질 합니다

차즐길 업는
흘러간 그時節의
조각 그림 들
행여 꿈에 만날가
잘들아는 마음은
비소리에 매달려
흐득 입니다

우름조차 목메여
하염업는 한숨에
벼개 우에 두손기
고요한 눈물
헐러 개고려 우름에
四月의밤이 흐릅니다

短篇小說 初戀 ★ (3)

오올더스・헉슬레이 作
高渭民 譯

그런뒤에 두사람은 개인적이 철학이야기와기탄업는 이야기를 섞거서하엿다. 서로의청이 중하는조용한 이야기엿다. 그거야말로훌륭히 문화적표준에 도달한 회화라고 휴버트는 늣겻다.

이튼날 민니는 동모인헤렌、글렘버에게 전화를 걸엇다. 여러가지 이야기할것이 잇는데오후의 차시간에 뷔러가도 관계찬켓느냐는것이엿다. 글렘버부인은수화기를 걸자마자 한숨을 쉬엿다. 『민니가 리어에 온다는구려』 하고 그는옐렌 문을 향해 소리를쳤다.

놀도 제편으로부터 남편의물쌍해 대답하엿다. 『아ㅡ라세』고 휴톤은 하며할말도와 엇더케도 할수업는단념의 어조엿다. 조금클렘버는 대단히 깁게 일속에 몰두하고잇섯슴으로、말하자면 아주 잠겨드러가지안코 남은 적은 표면의 부분만이、이신통치못한 뉴쓰에 반응하엿든것이엿다.

헬렌・글렘버는 다시금 한숨을 쉬고나서、좀더 편안하게 머리를 버개우에언고 팔을펴처서책을집엇다. 그는 남편의멀짐마한 말소리를 알고잇섯다. 그러고 그말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즉 그것은 그가말을 계속해도 남편은 매구도하지안코다만『흥』아라든가『응』야라든가 밧게 반응하지안흘것을 의미하는것이엿다. 그래애도 흥구하고 이야가를 거는날이면、남편은 호소하는듯이 슬프게『여보 일을 계속하도록 해주어야지하잔소』하고 댓구할것을 의미하는것이엿다. 그러치만 그순간 그는 잠간 이야기를하고십허서 못견댈지경이엿다. 그러나 역시그러케는안코 그는 민니의 전화를 밧느라고 읽다가만 대목부터 책을읽기시작하엿다.

『어때 임의 물건은 후궁(後宮)을둘러쌋다. 용감한알레잔드리아의교장(校長)은 칭훨라는 관내(館內)에 뛰여들어가 거기에살고잇든 미녀(美女) 이십명중이명을 남긴외 전부를 구해내여가지고곳 자긔의 사실(私室)에옴기엿다……』

이책은 남편 존이 그에게읽히고십허하는 유익한 서적의하나엿다. 이야기가 하고십허하는 아야기를 하다가 그는 러사에 대하야 그는 러사에 대하야 생각하기 시작하엿다. 저말불상한 민니。그가리이』에 온단날에 왜사람들은 속마음으로부터『아서라!』하지안흐면 안될가。그는 가련하다。그러나귀염엇시불상하다。세상에는 보는사람으로하여금친절하게해주고십게하는사람이 잇는것이다。도아주고 십게하고、힘이되여주고십게하는 사람이잇는것이다。병든 원숭이와 가튼 눈초리로 바라보는사람이그러나 불행히도 민니에게는병든 원숭이의매력이 업섯다 민니는 동동하고 건강한 수물여덜상의젊은 녀자에 몰파하엿다 결혼을해서 어린아히의 어머니가 되엿서야 할처지언만 그러면그는 조혼 안해가 되엿슬것이고 남에게 칭찬을 드를만치 용의주도한 어머니가 되엿슬것이런만 그러나 그가 아는 사나히는아모것도 그와 결혼할려고하지안헛다 그것은 조곰도 이상할일이안이다 그가 방안에 드려오기만하면 전등불이 눈에 보이드시 어두워가는것이엿다 그의

몸에는 조곰도 생기가 업섯다 도로혀 잇든 생기조차도 흡수하여버렷다 그는마치흡취지(吸取紙)와 가텃다 아모도 그와결혼하고십허하지안는것은 조곰도 이상할것이업섯다 그런대 그결혼이야말로 가장 중대한것임은 물론이엿다 특히민니편에서는 뒤제든지 사랑에 빠저잇스니 더욱 중대한 일이엿다

『여봐요ㅡ』하고 클렘버부인은 돌연히남편을불럿다『몽서(蒙鼠)에관한 이야기는 그게 정말입니까。』

『몽서?』하고、복도 저편에서 섯난 목소리가 냉담하게 번복하엿다。『몽서에대한 무엇이정말이나오?』

『죽음을 못맛나면 죽어버린단말이지요。』

『내가 그런걸 엇더케 안다오。』

『그려치만 당신은 원만한것은 다아시니까요。』

『글세 여보、정말……』 그말소리는 호소하는것갓고 원망에차잇는것가탓다。

부인은 황당히 손으로 입을 막엇다。그러하야 손을 떼여가지고 그손으로 키쓰를 보내는 것이엿다。『그만두서요。』그는쐐빠르게 중얼거렷다。『그만 뒤요 정말참미안합니다。다시는 안그럴테야요。꼭。』그는 다시금도 어롤 향하야 키쓰를 보내엿다 『그러치만、몽서는……』남편은 다시 되풀엇다。

『시시、시시。』

『왜 하필 몽서란말이오?』

『여보서요。』글렘버부인은 거진 명령적으로 말햇다。『정말 일을 계속하시지안흐면 안됩니다。』

민니는 리이에 왓다。그는 그 사건을 처음에는 제삼자의 사건인것처럼 가설적으로 이야기하엿다。그러뒤에 용과를 내여서 자신의 사건으로 이야기햇다。그것은 민니자신의 입에 올렷섯다。여간한 입에는 동하지안는 이교도(異敎徒)적입장에서、헬렌・글렘버는 대답하게 중고하엿다。

黑風 【23】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지주와소작인 (二十三)

떠퍼노코 조흔일이라고 수선을떨든 순보마누라는 영애의 조리잇는말을 듯고나서는 한참이 죽엇다

『에그 우리영애는 소견도잇지 말하는것이、모도 유전하고나 그러나저러나 할수업지 엇지 하겟니 속히갈도리나하지』

영애는 조혼말로 저의부모를 위로하얏스나 자기의 마음이 말한바와가치 편안하지는 못하얏다 첫재로는 논이떠러지면 엇지살가하야 왼집안식구가 걱정하고 바라든 소작권을 자기로 말매아머 도로엇게되얏고 자기가 호강하고 자기의친정도 구조할수가 잇스리라는것을 생각할때에 어려서부터 굼주리고 헐벗어서 가난에 쪼들리든 영애로는 여간 깃븐일이 아니엇다

그러나 무른꽃은 봄기운이 왼몸에 사모처서 피어나는 절다운사랑을 꿈우고잇는 순진한 처녀로서 처지가갓고 나이등한 청년남자에게 정식으로 결혼하얏다가 무리한지주의 강제와 롱락으로 파혼을당하고 륙십이넘은 늙근사람의 여러째첩으로 가게되는데는 녀자로서의 사랑에대한 영원한희망은 산산히 깨어진것이엇다 그리하야 무섭기도하고 한심하기도 하얏다 그러나 일은 엇지할수가 업시 되얏슴으로 다른말이 업섯든것이다

그말이 한입두입건너서 왼동리에 퍼저서 여러사람의 이야기거리가되얏다 어느날 저녁먹은후이엇다 동리사람들은 널븐마당에 모아안저서 농사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순보의 집말이낫다

『순보의딸이 한숙의아들과 정혼하얏다가 파의하고 한숙의 첩으로 가게된다네그려』

『순보는 딸을잘두어서 딸의덕에 호강하게 되얏네그려』

하고 부러워하는듯이 대답을 하얏다

『이사람아 그게무슨말인가 정식으로 정혼하얏다가 까닭업시 파혼하고 남의첩으로 주는것이 조흔일이란말인가 무식한 상놈의짓이니까 그러케 하지』

『그게될말인가』

『자네말이 퍽당한말일세마는 남의사정을 자세히모르고 그러케할말은 아닐세 지금이러케 어려운농촌에서 굴머죽게되는판에 그것저것을 다가릴수가잇나 은석의집과 한숙의집이 다굴머죽게 될터이니 엇지하겟나』

하고 인정세태를 참작하야 순보의사정에 동정한다

『그게무슨말인가 사람이 굴머죽더라도 할일이잇고 안할일이잇지 아모일이나 다한단말인가 그래 집이구차하면 딸도 파라먹고 며누리도 파라먹는단말인가』

하아 먹는것을 가벼웁게여기고 의리를 무거웁게여기는말을 강경하게 주장하얏다

『글세 자네말이 그르다는것은 아닐세 자네말은 대체를잡어서 리론으로만 하는말이고 나는 현실(現實)을잡어서 부득이한사정을 말하는것일세 옛날부터 세끼굴머서 담안뛰어넘을사람이 업다는말이 잇는것일세 순보나 한숙이만 나물할수는 업는일일세』

『왕은석이가 괴한놈이지 이맘저말 할것잇나 그놈이 논마직이를 가지고 구차하고 아모것도모르는 소작인을 위협하고 롱락하야서 정혼한처녀를 빼아서다가 일곱재나 여덜재첩을 삼는것이 얼마나한 죄악인가 그런놈은 그저……』

하고 얼골에 피때를올리며 주먹을 휘두른다

『자네말이 오른말일세 왕은석이가 잘못이지 순보나 한숙이가 무슨죄가잇나 굴머죽기는 정숙하기보다 어렵다네 남의말이니까 그러치 제가끔 당하면는 별수가 업슬것이네 저건너동리 축구정서방의딸은 그애가 열네살인가되는데 왕은석의집에가서 종노릇을 하지안나 그리고 우리동리 삼손의아들은 그집에가서 비부노릇을하네 그것도 다 논마직이 어더부치는까닭일세 순보나 한숙이만 나물할것은 아닐세』

이러케 여러사람은 벗고차기로 공론이 분분하얏다

平壤의 火災統計
一月以來件數로百二十餘에 損害額이 九萬餘圓

【平壤】금년은례년에비하여화재가 퍽도만햇스므로 평양소방대에서는방지에노력중인데금년일월부터 사월까지의 화재건수는백이십일건으로 작년동기에 비교하면이십건의증가이다
그런데 금년중에 연괴로화한금액은구만구천여원에달하엿다고한다

本社支局後援 西鮮脚戲大會 陰四月八日에

【信川】황해도신천읍에서는예년과가티 음사월팔일의 가절을고하야금년에도 전시민주최 본보지국후원으로 오는십, 십일, 십이, 삼일간서선각희대회를 개최 한다는데서조선일대의선수들은만히참가하여주기를바란다고한다

孟中里에서도 【孟中里】 맹중리에서는 오는팔일부터 십일까지삼일간각희대회를열게되엿다한다

古場初有의 어린이날記念

【古場】평북운산군위연면(平北雲山郡委延面)에잇는 본보고장지국에서는 지난달십일에 지국사무소에서지방각단체대표자십여명이회합하여『어린이날』기념식거행에대한 토의가잇섯는바 고장에는처음인만큼 일반은 만흔기대를가지고잇다는바 당일에는 고장시내는 물론기타각단체소년소녀를 총동원하야 오전십일시에 식을거행한후기(旗)행렬을하고밤에는본동(孟中?)… 청년회(靑年會)이며 당지연주청년회(延州靑年會)이며 각종포스타-와삐라는경성(어린이날)협양순비회에서 청구하여온것이라하며 그리고 지비각병원 상점에서는 이날을 긔념하기위하여 당일을전후하야일주일간독어린이에게한하야 무료진찰도하고 물품도 특별할인하야 판매하리라 한다

滿洲商工視察團
本報高原支局後援下에 五月十九日高原驛發

【高原】본보고원지국에서는금번 중의 본보 삼대경사(三大慶事)를 마지함에따라 독자여러분과 동경하는의미에서 고원, 정란(高原, 箭灘)량면주최 본보고원지국후원으로 만주국상공시찰단원을 왕복십오일간예정으로 모집중인바 규정은별항과갓다고한다

◇規 定

一、目的 滿洲國商工業現狀을視察함을目的으로함
一、視察地 蘇家屯、大連、旅順、周水子、奉天、新京、哈爾賓、吉林
一、期間 五月十九日出發 六月三日歸高
一、團員數 二十人以上
一、旅費 七十圓也(往復)
一、出發驛 高原驛
一、應募方法及期日 五月十五日까지 金二十圓을添付하야 參加를申請하되 殘額은 出發前日까지 納入함을要함 不得已中途參加를 取消하여도先納金은此를 返還치안이함

沙川本夫殺害事件
姦夫에死刑言渡 姦婦에겐十五年役

【咸興】지난이삼년전에함흥법원에서 사형과무긔징역의 구형을밧은 악독무도한 강원도 사천(沙川)의본부살해간부부 송삼봉(宋三鳳)과 류씨(劉氏)에게 대한언도는삼일오전열시부터 함흥법원에서 개정하여 미전재판장으로부터 구형과가티 송봉삼에게 사형류씨에게 십오년징역의 판결을 언도하엿다 한다

長箭浦에火災 一棟二戶全燒

【長箭】지난이일오후구시경에장전항일구차긔석(車基錫)의집에서 불이나서일동이호가전소되엿는데 부근은가옥이주밀한곳이니만큼일시화광이충천하여 대혼잡을일우엇는데 원인과손해는 방금조사중이라한다

平南道內各地에 天然痘依然猖獗
罹患者가二十餘名

【平壤】평남지방에는금년이월하순부터 진남포를중심으로룡강 평양등에천연두가류행하여일반주민에게공포를 늣기게하고 잇는터인데이일에도 진남포에서 두명의신환자가발생 하엿스므로 도위생과에서는계원을 파견하여 방역에진력중이다 삼일현재 환자발생수는진남포십여명, 룡강두명, 평양다섯명합계이십이명으로 세명의 사망자가잇섯다한다

設置運動促進次 委員會를組織
具體化되는平北女高

【新義州】평북도회에서는신의주녀자고보설치문제가 해마다문제가되여오든바 금년에도 역시이문제를중심으로 의론이분분 한든바최근전번의 도회에서 토사(土師)지사의언명한바와가티 녀고설치문제를 촉진식히기위원회를 조직코저대죽(大竹)신지사는 다음과가티위원들을지명촉탁하엿다한다

義利横(義州) 吉田稚(龍川) 金華玄(江界) 李熙迪(新義州) 洪致業(宜川) 多田榮吉(新義州) 張暻植(朔州) 池田信(義州) 飯島榮太郎(雲山) 李炫貴(厚昌)

新劇場開場

【新義州신】의주우일의 조선인오락기관인 고려영화사의 직영신극장은 그동안 수리중이든니 오는십일부터 개관하게되얏다는바 새로수리된 신극장은 그설비가 조선에잇는극장중에는 가장신식으로되얏스며 수용인원으로 신의주극장중에는 제일이되리라는바우리의손으로이와가티된동일반은크게환영한다고한다

楚山地方에 甘雨洽足

【楚山】평북초산지방에는해빙기이래 비가나리지아니하야 강물은 기외수원이 말라버릴지경 이엿고 파종기를 련타하야 천량간곡경이 불층하게 되엿슴으로 일반농촌에서는 흉년이지몰을안상태에 빠저잇던바 지난이십칠일 오후다섯시 반부터 호우가나리기 시작하야한 시간동안이나 계속하고 그남밤에 도다시 약간의비가나리여 전답간 곡경이 흡족하게됨으로 일반농촌 에서는희열하기마지안는다고한다

無料診療 【南海】남해읍내 남해의원에서는 오월이일부터동 딸일까지 일주일동안을 아동에게 일체 의한사업으로 무료진찰을시행중인바 아침일 즉부터 어머님의등에업혀 문열기 를기다리는 귀여운어린생령이 무려수백에달한다고한다

義州郡下 大山火

【義州】의주군송장면송산동(松山洞)리윤부(李允富)의산에서 지난이일 오후두시경에 원인불명의 불이일어나서 붓기시작하야 그우에 린접한대문동(大門洞)에까지 연소하야 약삼십정보나 타는바 일반동민의적극적진화로동구시경에 진화하엿다는데 손해액과원인은 조사중 이라는바한발이심하야 민심이소란한때에 이처럼불까지낫스므로그지방의일반은극도의불안상태에잇다고한다

讀者慰安會 【孟中里】본보맹중리지국에서는 독자를 위안키위하야 래신구일 일요일을리용하야본보 독자와가티 산노리를하기로하엿다한다

同伴끼리言爭끄테 食刀殺人의慘劇
二日釜山에서演出

【釜山】지난 오월이일 오후열시이십분경 부산부남부민정(南富民町)과록정유곽(綠町遊廓)을 통한대로상에서 살인의참극이 발생하얏는데 그내용은 피살된사람은부산부남부민정(南富民町)삼백이번지 조돈만(趙敦萬)(二○)이고 가해자는 한동리에사는 리덕룡(李德龍)(二○)인데 두리다 친분이잇는동무로 동일그동리에서 친구의결혼식이잇서서 그집에서 술을만히먹고 여러동무들과 록정유곽으로소풍하려가든중 중도에서 입힐난을하다가 싸홈이되여 가해자는그부근에잇는 남의집으로 들어가서식도를가지고나와 피살된 조의치복부(側腹部)를 찔러즉사케하얏는데 범인은 곳부산경찰서에피검되고 시체는 상입부산경찰서에서해부하얏다한다

開城座의新施設

【開城】개성에유일한 활동사진 상설관인 개성좌는 종래설비의불충분과 영사긔의불완전으로 인하야경성영화배급소로부터 고급 발성영화를 배급치안함으로 일반영화팬들의 개성좌에대한비난이점점심하야진이때에이즘개성좌조합이새로창립되여가격사천여원이나되는『로-라발성영화긔』를구입하야금월오일부터 정묘적으로 고급발성영화만을 상영하리라한다

그女子의一生 【95】

春園 作 夕影 畫

『글세 그게 다무슨 소리야?』 하고 손선생은 싱그레 웃으면서,
『내가 금봉이밧게 바라는게 무엇이라구. 내게 잇는돈을 다 주어도 아깝지아니할터인데. 그까진 돈? 내 목숨까지라도 금봉이한테 다 주어도 아깝지아니할터인데. 웨 그런 소리를 해, 헤, 헤, 허』
금봉은 손명규의 이 말과 이 웃음에 몸서리를 첫다. 마치 두꺼비의 입 가튼 손명규의 입에서 흉악한 냄새나는 독한 늘한 긔운이 나와서 저를 마취를 시키는것 가탓다. 갑작이 몸이 치워지는것 가탓다. 그래서 금봉은 손명규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깨우랴는듯으로,
『사모님 병환은 어떠서요? 좀 나으서요?』
하고, 물엇다.
이 말은 금봉이가 예긔한대로 손명규의 가슴을 찌른 모양이엇다. 그는 그 몽룡한 눈을 크게 치뜨고 한참이나 말이 업섯다. 마치 무엇에 머리를 부듸처서 정신을 일흔 사람모양으로 그는 숨도 쉬지아니하는듯하엿다 금봉은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하엿다.
그러나 손명규의 눈과 입에는 다시 생시긔가 돌면서,
『사모님이 어듸 잇나? 인제는 업서』
하고 히히하고 웃는다.
『사모님이 업스시다니?』
하고 금봉은 눈이 둥글햇다.
『업서. 벌서 간지가언제라구』
하고 손명규는 아주심상하다.
『어듸를 가서요, 사모님이? 암호시는 어쁘이?』
하고 금봉은 번번히 사모님이 라는 말에힘을 준다.
『벌서 저 집으로 갓서. 벌서 천당으로 갓는지도 모르지. 지난 가을에 갓서』
하고 손명규는 수수꺽기가튼소리를 한다. 금봉은 그것이 징그러웟다. 이 작자가 사모님을 독약을 먹여서 죽이지나아니하엿나? 그러치 아니하면 무슨 감언리설로 속여서 리혼이나 아니하엿나? ─ 이러케 금봉은 생각하엿다.
금봉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잇는것을 보고 손선생은 양복 저고리 속주머니를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어서 금봉의 압헤 내 밀며,

『이걸 보라구』 한다.
금봉은 그것이 무슨 흉한것인가 십허서 밧지아니한다. 손명규는 그 봉투를 한참이나금봉이압헤 내어들고 잇다가 금도로 팔을 움지려서 제손으로 그 봉투속에 잇는 조히를 꺼내어서 금봉의 압헤 펴놋는다 금봉은 그것을 본즉이 끔직끔직하엿지마는 아니볼수 업섯다. 그것은 민적등본(그때에는호적이아니요 민적이엇다)이엇다. 그 민적등본에 의하면 손명규의 민적에는 오직 그어머니와 손명규가 잇슬뿐이오 손명규의 안해는 업섯다. 금봉은 놀랏다. 금봉은 제 민적등본에 올아간 어머니가 봉은줄로 에워젓던것을 긔억한다. 손선생의 부인이 죽거나 리혼을 당하엿다하더라도 민적에 붓흔 줄이 잇슬려인네 웬일인가 하엿다. 이 작자의 일이니까 무슨 협잡을 한것인가、위조인가 이러케 생각하엿다. 그래서 금봉은 좀 악의를 가지고、
『그럼 사모님은 어떠케 되섯서요?』
하고 물엇다.
『본래 민적에 안들엇섯서。』
하고 민적등본의손명규 다음ㅅ줄을 그굵다란 손ㅅ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요거는 리금봉이라고 쓸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동경을 왓서』
하고 혼자 다 작정한것 가티 중얼거렷다。

유모 풀구하오니 희망하는분은지급히오십시요 京城府鐘路五丁目九八 電光六七九番

一等요리
진수성찬이라도 맛이없서서는 한푼의 가치없는 요리입니다
진수성찬이라도 아지노모도를처서 맛이 잇서야 一等 요리입니다
아지노모도 味の素 (登錄商標)

小冊子「四季朝鮮料理法」進呈(要七錢切手)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味の素本舗株式會社鈴木商店京城事務所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舗 株式會社 鈴木商店
5-8
004241

洗髮料 花王シャンプー (샴푸)

美髮의秘訣!
한주일한번ㅣ가오샴푸ㅣ의洗髮이야말로氣分을明朗케하고 머리털에潤을냄니다。
가오샴푸ㅣ는 東洋婦人의黑髮을硏究하야 多年硏究한結果 製造된가장優秀한洗髮料입니다。모지가심한어때에는特히가오샴푸ㅣ로감는것이第一조습니다。

有名百貨店、雜貨店에잇소
長髮一回分 斷髮二回分 一個五錢
MS159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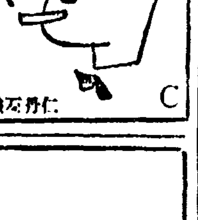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有名賣藥
京城府鐘路四丁目 電車交叉点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實物大) 十四金ペン
アーロイ高級萬年筆 新製宣傳特賣
(既守定價一圓半ノ品) 宣傳見本只の六十五錢 (品質三年保證)
代金引換御注文の節は必らず送料御添付の事
東京中野局私書函一八
製造元 鈴木合名會社
振替東京九九八六番

筆生
男女秘戲의極致版 寫眞 (見本目錄卅錢)
珍一本打 四圓 珍一打 八圓
盛文社 大阪天王寺北河堀町

간질
간질이란이는腦病으로多年困難한人이效能을信用할수잇는理想的專門의良藥이有함 不知한人은申越하라 病理說明書感謝狀添付進呈함
大阪市浪速區役所北通・大福堂

仁丹香錠
세번놀낸다
第一당배먹는맛、담에먹고나서爽快한맛、그러고、胃腸이조와진것
ーニコチン緩和劑ー



ギター는モンタノ印
レコードケース는スタンダード印
名古屋 元賣 發賣元 帝國發明社

아침 毎日 一服
はれやか

大正館 櫻井町 本町入口
五月三日より短期特別公開 新鮮普薬が誇る五月映畫壇に咲く絕對大衆番組
RKO超特作オールサウンド版 チヤーリイチヤツプリン氏自作自監督主演映畫
裏街の英雄
笑ひと涙の一大喜劇爆笑の巨篇 チヤツプリンが一代の名演技
JOウヅマサ超特作豪華映畫 ウヅマサ創立第一回製作時代映畫 製作總指揮…池永浩久 勝見庸太郎聯第一回監督 オールトーキー
天下の伊賀越
早川雪洲特別第一回主演 森英次郎、尾上多見太郎 諸口十九、三田照子 洞部吾郎、松浦築枝 共演
伊賀の上野に劍豪旗本三十六劍士を對手に劍聖荒木又右衛門の閃閃火花散る痛快伊賀越三十六番斬
JOウヅマサ超特作オ!ルトーキ! 海軍省指導賀海兵團特別後援 脚色…如月敏 監督…永富映次郎
俺は水兵
鄕家金藏特別主演 上田吉二郎、芝ちら共演 海軍軍樂隊…特別演奏 軍艦比叡日進…御出動

經濟解說 重視되는 銀價 그 換算의 內容 (三)…申泰翊

倫敦과 紐育의 銀塊市場이 世界의 銀價를 左右하고 잇는 터이나 그밧게도 銀價에 對한 重要性을 띄이고잇는 銀市場이 잇다 卽上海와 孟買의 市場이 그것이다 이兩市場은 倫敦과 紐育의다음가는 地位에잇서 銀價의趨向을 살피에 看過치못할 市場이다 이것은 왜-그러냐고하면 孟買卽 印度는 銀產國 또는 銀의大需要國이며 上海 卽中國은 銀本位貨國인만큼 銀價騰落의 事情에잇서 密接한 큰關係를맷고잇는때문이다

×

▲上海市場=中國은 銀本位貨國인만큼 그需要의나라이다 그럼으로 中國에는 銀이 流入되는터인데 이銀의集散에는 반듯이 上海市場을 거치고또는 이곳에 貯藏되어잇는것이다 그런데 中國에는 倫敦이나 紐育과 가티 銀塊市場이 아니다 이것은 왜-그러냐고하면 銀이 中國의本位貨가 되어잇는까닭에 銀塊市場이 잇슬必要가 안생긴다 그러나 上海市場에서 取引되는外國爲替와 金塊市勢는 그反面에잇서 銀市勢로 되는結果를 보게된다 그리고 上海의 銀需給關係는 곳 對英、對米爲替에 反映되야 이것이 中國의銀市勢다

×

▲孟買市場=印度는 銀產國이며 銀의大需要國이므로 印度에는 銀塊市場이 相當히 잇다 그러나 이中에잇서서도 孟買에잇는 銀塊市場이 印度를 代表하는地位에 잇서온다 그런데 이 孟買市場이라는것은 孟買市場中 一區域인「바자-」에 잇는것으로 이市場에 銀塊取引員이 모혀들어서 取引을 하고 그市勢의單位는 千分의九百九十八品位의銀塊 百토라스(一토라스는 八分三厘)쓰로 그呼價는 倫敦이片、紐育이 仙인것과 가티 이곳에서는「루-피-」인것이다 그리고 受渡에잇서는 現物과先物이 잇는바 卽 現物은 그當日 或은 그翌日에 受渡를하는것이며 다음에 先物은 當月渡、또는翌月渡의두가지가잇다 決濟日은 미리 定하고當日로 五日間에잇서 受渡케되어잇스며 그外에 期限受渡라는것이 잇서 約定한뒤 四週間以內에 銀의引渡를 끗내이고 到着한뒤 十日以內에 代金引換으로 受渡한다

×

以上으로써 世界銀市場의說明은 끗낫다 다음에 밝히지안흘수가 업는것은 銀爲替이다 이銀爲替라는것은 銀을 本位貨로한나라의 對外爲替市勢를 말하면 銀本位貨國間의 市勢를 가리켜서 하는말이다 오늘에잇서 이銀爲替를 차저본다고하면 世界를通하야 銀本位貨의 中國對外爲替를 들게되다 그런데 中國의貨幣制度가 오늘까지 매우 混亂한 狀態에 잇서온는것이 顯著히 눈에 띄인다 卽 南京政府는 民國三年(一九一四年)에 銀元으로써 本位貨幣를삼고 그無制限法貨의資格、自由鑄造를 認하고 그밧게 銀、銅、「니켈」로써 補助貨幣를 鑄造하야 混合法貨制度를 세웟다 그러나 實際에 잇서는 依然 銀元、銀角、銅元、制錢等이 實價로써 流通되고 一圓으로 評價된貨幣의單位인 兩을 使用하고 그때은 數十의種類가 잇다 그리고 紙幣에잇서는 兩紙幣란 것과 弗紙幣란 것이 잇고 그發行에 잇서도 中國內地銀行 또는 外國銀行도잇서 그貨幣制度는 참으로 不統一이 莫大하엿다 이와 가튼 實情을보고 一九三三年七月에 南京政府는 廢兩改元의 單一制를 斷行하얏다 그러나 아즉도 實際에 잇서는 完全한 貨幣統一을 못보고잇는터이다 (未完)

朝鮮米生產費問題 今年도論議難免形勢 中旬에열닐生產費調查會注目 公正한決定을期待

外地米 生產費調查會는 中旬으로부터 開催될 모양인데 이時는 日本內地米의 生產費가 놉고 朝鮮도 高價인데 昨年도 議會委員會를 通하야 朝鮮米生產費가 만타고 論議中心이되엇던問題인만큼 高價이면또 相當한論難이잇슬것갓고 今年의決定은直時로 法律上影響은 受치안는다드래도 將來米穀法案의 基礎材料로서 織入될것이明瞭함으로 朝鮮으로서는 將來에累를남기지안토록公正한生產費가 決定되기를바라다 한다

荷見局長의報告 朝鮮不利를憂慮

저번朝鮮을視察하고간荷見米穀局長의報告가果然어떠할지總督府當局으로서도朝鮮米生產費決定에不利한結果나招來치안흘가念慮中이라한다

北鐵代價 支拂物貨 主로重工業品說

【東京電話聯合】北鐵讓渡에伴한 九千三百萬圓의 支拂物貨를 決定키爲하야 來朝한蘇聯經濟使節團은 유레니에프大使와 코지에로푸通商代表等과 協議中으로近間 關係各方面間에 買付交涉이 開催될터인데 유레니에프는 三日大阪商業會議所의 懇談會席上 日本物貨의 需要激增에 關하야 如左히述하얏다

北鐵의 讓渡는 極東平和의基礎를 確立한것으로 日蘇貿易은 여러가지 事情에 阻止되어 不成績이엇스나 蘇聯國內에서는 第二次 五個年計劃이 進捗되는 中으로 物貨의需要도만하 今後日蘇의 貿易에는 物資를通하야 日本이優秀한技術을示하야 주기를바란다 購入物資는船舶、動力、鑛山、鐵道、機械、雜貨類로 그品目等에就하야서는 專門使節이하게되어잇다

그리고 使節團一行九名中四名가지重工業專門家이오 그外에寶石關係技師가 一名參加되어잇슴은 購入商品의大部分이 重工業品인것을暗示하는同時에 此等技師의 目的은 다만商品購入의 範圍에 留치안코日本工業의 實質的方面에關한 綿密한調査研究를 할것으로보이어注目된다한다

協定不變? 鰮油運賃 東京에서交涉

昭和十年度 北朝鮮鰮油의 日本內地移出運賃協定은 六日부터東京에서 一手引受輸送會社인 朝郵側의 交涉委員今田副參事와 日本內地買受會社代表間에 交涉이 開始키로되바 結局鰮粕運賃의据置決定實例로보아 前年運率据置로될모양이라고한다

魚粉運賃引上 四日協定成立

昭和十年度北朝鮮產魚粉運賃은 四日神戶에서 朝郵交涉委員今田副參事와 神戶業者會商協議의結果 兩方互讓으로 前年보다 各地가 모두一割引上키로 協定이成立되엿다

米日爲替强保勢

【京城三日發聯合】三十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하면賣二十八弗五十五仙으로一仙高買二十八弗五十五仙으로一仙高

▲東京爲替(四日)
對米 賣 廿八弗 十六分七 買 廿八弗 十六分九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三

▲大阪爲替(四日)
對米 賣 廿八弗 十六分七 買 廿八弗 十六分九
對英 賣 一志二片八分一 買 一志二片卅二分五

預金減少이나 貸出은增加 資金回收遲延으로

京城組合銀行 四月末現在預金貸出殘額은 預金一億五千五百二十七萬七千圓 貸出一億三千三百六十萬圓으로 四月十五日現在에比하야預金은 九百萬圓의 激減이 엇는데 貸出은 도리어四百八十五萬六千圓의 增加이엇다 預金激減의原因은

定期 七八四千圓
特當 一、四二三圓
諸預金 九、五六三圓

의減少가 되대문으로 貸出은爲替手形이三十五萬圓의減少이며手形貸의四百三十五萬九千圓을 비롯하야 모두增加하엿다 그러고前年同期에比하야 預金一千七百五萬一千圓 貸出一千八百萬九千圓으로모두增加햇는데 貸出의增加는資金의回收遲延이 그主要原因이라고한다

鮮航同盟對抗 商船郵船運賃引下

【大阪電話聯合】商船、郵船에서는 鮮航同盟이荷主에 對抗하야 鮮航同盟米穀契約運賃을 決定하엿슴에 對抗하고 郵商各線에서 아래와가티 運賃引下를 發表하엿다

一、西南鮮九州間
仁川博多長崎間 八十圓
同 三角間 八十五圓
同 鹿兒島間 九十圓
鎭南浦、群山、木浦、釜山間의 賃金差는鮮航同盟의 賃金差에 準함

二、北鮮阪神、裏日本間、卽 淸津、城津、新浦間 八十圓
雄基、城津、元山으로以上과同運賃其他의寄航地와의 賃定差는從來대로하고 右運賃은從來보다十三圓低이라고한다

通商權擁護法을 加奈陀에適用키로

【東京電話聯合】加奈陀政府의日本商品의 防止策에對하야 日本의 外交交涉도 何等効果가업섯슴으로 政府는 過般의 通商審議會에서 通商權擁護法을 發動하야 報復的措置를 講究키로 決定한바 右發動에 伴하야 兒玉拓相이 貴族院議員의 資格으로 高橋藏相은 同法을 運用하기前 拓相의 委員辭任에 對하야 諒解를 求하엿슴으로 兒玉拓相은 三日午後十時 牛込의 私邸에 町田商相을 訪問하고 그協議를 하엿는네 今明間 兒玉拓相의 關稅委員辭任이 發令될터이라고한다

東拓貸付增加 米資回收遲延

東拓京城支店 四月末現在 貸付金殘額은 定期四百七十七萬三千圓 年賦五百八十九萬千圓 計一千三十六萬四千圓으로 三月末에比하야 二十三萬三千圓의 增加인데 이것은 米資回收의 遲延으로因한것이다

京畿道水利組合 理事協議會開催

京畿道內 水利組合理事協議會는 六日午前十時부터 道廳第二會議室에서 開催하고 管內十三水利組合의理事 組合長 關係郡守等出席 成績이不振하는 水利事業今後의對策에對하야協議할터이다

產糖委員五社

【東京電話聯合】三日理事會에서法定된 日本糖業聯合會에서는三日理事會委任事項에對하야協議한結果 各種委員會의存廢에關하야 昭和十一年에產糖協定委員會만을남기고 其他는廢止키로 되엇다 그리고 右產糖協定委員은 理事長指命으로 臺灣 明治 日本 鹽水 臺東의五社를決定하엿다고한다

『씰버·랏슈』時代 關釜連絡船으로二千二百萬圓어치 朝鮮서銀塊大行軍

米國의銀政策이 國際經濟市場에激妙한影響을生하야 銀本位國의 中國에서는 銀의 國外流出을熱心히 防止하고 잇는此際 朝鮮各地로부터銀塊의日本移入이 激增되엇다 門司鐵道局調査에依하면 四月中에新義州、開城、京城、釜山으로부터 關釜連絡船經由로東京、大阪、神戶에輸送된銀塊도 合計六千二百九個二十七萬九千四百五키로구람으로 市價一匁三十三錢平均으로 計算하면 約一千二百六十萬圓의 巨額에達하야 씰버·랏슈時代를 現出하고 關釜連絡船空前의 輸送數量을示하얏스며 압흐로도 銀의日本內地移入은 一層增加되리라고 觀測된다한다

秘露政府가 銀輸出禁止 新產銀證明付輸出

【東京電話聯合秘露三日發】秘露政府는三日 擧境銀의輸出禁止令을發하엿다 그러나新產銀은 原產地證明을 부치면許可한다고

【리마三日發聯合】秘露政府는 三日銀貨와 銀塊의 輸出을禁止하엿는데 同時에銀의退藏買賣를嚴禁하고 違犯者에對하야 嚴罰를 科키로되엿다

▲註=秘露는 南米西中部海岸에잇는나라로서 銀產量이相當하다고

銀塊市價反騰

▲倫敦【倫敦三日發聯合】昨日中國側의 巨額賣物을一片以上이 떨어진는 倫敦銀塊市場公定市勢는 三日中國側을비롯하야 印度側의買進으로 反撥하고 現物一片高先物一片十六分一高의 三十三片十六分九로 되엇다

▲紐育【紐育三日發聯合】紐育銀塊公定市勢는 三日倫敦

銀行貸出競爭激烈! 一流로부터二流銀行에波及 普銀統制論이擡頭

朝鮮內地元銀行의 貸出金利引下에依한 顧客爭奪戰은最近去益激甚케되어 이 以上競爭의激化를보면 各銀行共히採算이안되게되어 銀行經營上 憂慮할結果를招來할모양인데 一流銀行當事者도 이 傾向을遺憾으로알고 相互自重하야 協調를 期하야 無意味한競爭은 極力으로避하자는意向에 與하야 各當事者의個人的會合에 잇서서는 極히 協調的空氣밑에 本問題를 俎上에 올려 議論하는 中이나 實際問題로서는 依然 協調가 困難하야그餘波는 必然的으로 二流銀行에 波及하고 甲乙兩銀行의 貸出金利의 差는 漸次 接近의傾向이 잇서 三、四厘의 開가 最近 二、三厘 乃至 一、二厘로 縮少되기에 至하얏다 이는 二流銀行이 多年에 亘하야 取引關係가 잇고 信用이 確實한 顧客을 確保하기 爲하야 一流銀行의 地盤擴張政策에 對抗하야 金利의 大幅引下를 斷行하는것을 示하는 것으로서 朝鮮의 地元銀行의 統制는 此等의 傾向으로 보아도 極히 必要하다고 보힌다 한다

局鐵朝鮮米發送 五月二日

	今年	前年	比較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減
大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增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減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增
元山	三	[illegible]	[illegible]減
城津	一四	一	一三增
今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減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增

今日財界 (四日)

◆米 仁川期米 / 大阪期米 / 三等米 / 正租(仁川在來) / 一斤價
◆市中金銀價 金 / 銀
◆株 朝取新 / 東新 / 日產 / 大阪綿絲 / 大阪棉花 / 大阪人絹 / 大阪砂糖 / 고무現
(數値 [illegible])

經濟界消息

○滿洲化學重役會=【電通東京電話】滿洲化學株式會社에서는三日正午 丸內東京出張所에서重役會를열고 二十五日 大連本社에서株主總會를열고 一、今期營業報告의件(承認) 一、定款一部改正의件(無配當)을 附議하기로 決定하엿다

○京城不動產總會=京城不動產會社에서는 四月末決算을끗내고 五月末 第二回定期總會를열고 諸決算案을上程할터인데 配當은八分으로內定하엿다고

○郵船二分增配決定=【東京電話聯合】日本郵船會社에서는三日 決算重役會를열고 當期利益金處分案 卽配當二分增의年五分을 協定하고 二十四日午後 同社에서 定期株主總會를열고 任期滿了의取締役木村久壽彌太、大橋新太郞、菊池泰三、監査役東久世秀雄의四名改選件과 함께 附議키로되엇다고

商況(四日) 賣物續出 株式漸落

前場崩落 波瀾裡 低下인市勢는 今朝는 休日을 압두고 外電스틸高、米綿高이오 綿絲、棉花도 昂高이나 平凡寄後 漸落步調를못고 投賣와 突込賣도나와 場面은 자못不勢로 東新百四十八圓六十錢 日產九十五圓二十錢 大新九十四圓丁에까지 崩落되엇다가 引際下避味로 結局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一圓五十錢低인 百四十八圓九十錢日產一圓四十錢低인 九十五圓七十錢、大新一圓四十錢低인 九十四圓二十錢、朝新二十錢低인 二十七圓七十錢에 各大引되고 帝人百三十四圓六十錢 拓新九圓四十錢이엇섯다

▲朝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後場休會 後場은 例休인데 大阪短期氣配가 小高로大體保合이엇슴으로 當地도 不變唱이엇다

混戰裡에漸落

後場마다내리갈기는것이거의 癖이되어 再昨後場도 崩落되고 昨後場도또日產을 先驅로 東新大新을 내리두들기어 形勢險惡이엇다가 驟然急反撥되뒤를이어 今前場도凡調一息寄後休日을 두고 買物이續出하야 日產先으로諸株一齊低落의不勢로 場面人氣가 不良하얏는데 熱上하고投出하고 이러쿵저러쿵近來稀有의混戰을演하는中으로 二週間以上極細刻保合이던 前月上、中旬에比하면 隔世의觀이잇다 新東

日產特히不良 黃金時代既去?

一時는 東新의 地位까지빼어서 株界에 君臨하고 花形株로서큰 소리하던 日產도

一、各種事業에 너무손을펴서 融通的擴張이 程度에 지나친것
一、倍額增資로 株數增加의 壓迫이잇는것
一、日產에 期待를가진다할지라도新株에게勢力을 빼앗기고新株인日產에는 貨繁物이만흔것
一、大勢金塊高가約束되어 잇슬수록 月產보다는 참아리 日 [illegible]

거머리와가티 賣玉維持有利!

[illegible]

株 市場六感

熱心大强氣를 大保合時부터 提唱하던 側에서도 昨今의波瀾에는全혀 氣迷에陷하야 갈팡질팡하는모양▲크게賣込되면 그것은정말 스며 萬一이대로다시 反戾되어도 못올라간다면 無條件賣買場으로큰上市勢가 展開되겟論者가생기게되엇다▲東新이東一貫이得當타는 미지근한消極株移轉當日의百八十四圓二十錢을高價로 百七十一圓으로十三圓三十錢低落된歷史에 徵하야 大新도 五月一日大株移轉當日百圓賣가天井이고 綿貨過多의 嫌氣로 移轉前의 市勢以下로떠러지고 말엇스나 모를

米

今朝十丁突高로 初付이든 阪地市勢는 三十圓四十四錢을 一暫하더니 結局三十五錢으로 止場▲當地亦八圓〇七錢까지 跳返하더니 阪地의伸惱와共히 寫眞市勢그대로의 호지부지▲人氣만은强하고도이러타할만한 强材를發見치못하야 絶對賣人을못하는도양

게라市場人의 心理에 어찌이리 豹變하는고?▲世界的軍擴艦時代가 必然하니 이것을이저서는안되다고 强氣들은은히期待하는모양 ▲投出하고賣込하야 波瀾이크면클수록 取引所의賣買高는 만허저서來期를有望視케될것이오 弱氣들이天井觀으로 賣叩하면押目이되어好個의買場이되리라고 큰소리하는사람도不無

見하지못하야 絶對賣人을못하는도양▲朝鮮의 雨量은좋지못하다고하나 麥作과播種에는何等의憂慮가업는現象▲그러나今後植付期에入하기까지昨今과如한天候를繼續하는때는用水不足을 發치못할모양이라고 ▲사람으로서 天翁의일을 알수는업지마는 오래동안旱天을繼續하엿든만큼 循環的으로보아 降雨가 잇슴것을可期▲그런데昨今正米는 時期가時期인만큼賣行이 제법良好하다고이로부터買氣를助長? ▲그反面으로는 政府米의拂下가 엇지안흘모양이니 此는買氣를助長할材料가아닌가 ▲一秋硬의兩材는언제나업는것은아니지만 大勢를一考한다면 先高後低?

期米 小强後에 低落

前場小戾 昨後場阪地三十圓三十四錢止와共히 二十八圓丁에場을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三十圓四十四錢인十丁突高를바고 二十八圓〇七錢인七丁反高로場을始한後 阪地二節三十九錢으로四十二錢까지返戾하얏스나 依然伸力運鈍으로結局三十五錢에止場함을伴하야 〇四錢인比較的低壓으로小强하엿다가 〇一錢으로小弛하야 場을止하엿다

後場低落 後場은 二十八圓〇二錢에 二丁低로 始場後 四節二十八圓寄削인 二十七圓九十七錢 五節九十一錢에 低落되고 別欄가티 止場하다

本欄…後에妙味가 만코 大阪期米에 日產이上昇하며부터는 日產에對한 人氣가 大減하엿던것

等으로 日產은 昔日의黃金時代는이미지난觀이잇고 人氣가離散되때문에 日來의 日產은 寄附不快하야 今前場은 東京短期가 九十五圓五十錢(當地는 九十五圓二十錢)의 低價까지잇서 四月二日의 第二番底九十四圓四十錢에 接近되엇는데 二月十八日의 第一番底 九十圓十錢은 下廻지안는다할지라도 二番底가 崩壞될마음되엇다 그러나形勢가이러케不良하다고深込하야 新規로賣叩키는考慮할것도한바果如何?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四十枚
▲宇治電 [illegible] ▲大同電力 [illegible] ▲同新 [illegible] ▲人造羊毛 [illegible] ▲昭和水進新 [illegible] ▲富士木村 [illegible] ▲日鐵 [illegible] ▲帝藤新 [illegible] ▲에라파이新 [illegible] ▲大分세멘트 [illegible] ▲鮮滿開拓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休日을압두고無材料인데다가 賣方이乘落으로諸市況은小高下區區의 鈍調이엇다
▲甲五分利 不申 ▲二回四分利 不申 ▲一回四分利 不申 ▲佛貨四分利 一八五、九五

아즉保合時代 中途에去而之

바로凶作의 本格的市勢를 發揮할 못하는七圓見는 意外大上昇으로發會하야자못 買氣旺盛하엿스나 更히騰勢를維持하지못하고 二十餘丁의反落을生하엿다 그러나低落의形勢도 深入할餘力이업시 賣方의警戒와 買方의 抵抗으로下落의 光景을呈하야 因而保合圈內에入하고말엇다 實로 挽近正米의事情은停滯米의賣行이 良好할뿐아니라產地의 賣出이稀薄한 者伴하야 多少引締의 觀이잇스나 그러나 一方으로는 麥作의良好又는播種의 樂觀을呈하고政府米의拂下도 不遠한將來에 實現될것을豫期하는賣物이 또한殺到하야 强軟兩材는結局相殺되는同時에 兩方의勢力도 莫上莫下의 形勢를 維持함으로 當分保合時代로볼수바게업다果然波瀾萬丈의 本能을 發揮한七限의前途는如何?

當中은頑强코 先限만은軟弱

今朝阪地의 十錢突高를 入하야 當限은 七圓六十錢臺 中限은七圓八十錢臺 先限은 八圓〇臺로反騰하엿는데 就中當中兩限은又一層强味를 添하야 七限寄會初에 五十丁의 開報이든 當先의報는 三十七丁으로 縮少되고三十一丁의 開報이든 中先의報는 二十丁으로 縮少되엿다 要하면 先限은 前天災에入하는限米인만큼天氣의如何에依하야 足히살수도잇고 몰수도잇슴으로兩方共히서로屈하지안코戰線을延長할수잇다그런데昨今先限은天候의比較的順調로 植付難의嫌이 無할것을 懸念하고 地方側의賣注文이 續到하야 伸力을阻止하고 當限은 保證的 買繁物을擁하엿는 賣方이挽近正米의 賣行이良好함을 窺하고 定期를離脫하야 現物크대로 賣却하기때문에 利喰買의反高를示함에至하엿고 中限은當限高에 牽制되어 또한 硬勢를呈하는光景이다 그러한點으로 보아서는 正米의反落을 告하기外에는期近의低落을期待키難할것갓다

朝取期米取組高

◇賣方 ◇買方 當限 / 中限 /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仲買

【大阪電話】東京別派의買叛로寄付는十丁反撥이엇스나 其後永岡의乘換賣와 三木、小林의賣進으로伸惱이엇다 場面은淸取引이마神戶側은小川淸店으로부터百六十枚潮崎로부터五十枚買進하얏다 賣方 山種、朝鮮側、地場弱氣側 永岡乘換潮崎、三木、地場 買方 神戶側、東京側別派、岡米自己地場强氣側

各地正米

京城底堅

休日을압두고賣物薄의 淸算의小高로實需側의 買望이 旺盛하야氣配五錢高의 底堅現狀인 丸三等二十七圓六十錢 四等二十七圓三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引締

定期의 不澁人氣로 日本內地로부터 移出側의 引合에對하야 入注가잇고 産地의 積米側에 買望되엇스나 賣物이 依然히 적고 氣配는更히 五錢引締인 丸三等二十七圓六十錢 四等二十七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錢

釜山不動

出以三千叺、淸算의恢復步調를移하야日本內地入注가出現하고移出側의買氣를誘致하얏스나 賣方의態度硬强으로取引은積極味를缺하야 地場當用側에서 買狙될뿐으로氣配不變唱인丸三等二十八圓十錢 四等二十七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八錢

大邱焦付

淸算頑强을듯고 買氣가不昂하고 賣行이조치못한氣味로一般買方이積極的의低價附態度로取引이안되고 市勢는焦付狀態인角丸三等二十七圓五十錢 四等二十七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群山小堅

廻着六輛인데거의買付物이오新規의賣物은極히小口로定期의小反撥과日本內地賣行이잇서地場必需側의準備急과相隨하야五錢高의小堅商狀인◎三等二十八圓 四等二十七圓九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同調

休日을압두고 產地所持側의 賣物이相當히 齎來되엇스나 低價에는 賣急치안코一方日本內地로부터 綿縷入注가잇서 氣配同調이나 强含商狀인丸三等二十九圓六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

南浦小高

休日을압두고正米取引은 不賣不買의 無風狀態이오 氣配는淸算에追隨하야 十錢高로唱인丸三等二十七圓八十錢 四等二十七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錢

金融 (四日)

◆海外經濟 倫敦銀塊 / 紐育銀塊 / 倫敦金塊 / 米國相場 / 印度爲替 / 紐育仲爲替 / 아나콘다 ([illegible])
◆朝鮮銀行券 發行高 / 正貨準備 / 保證準備 ([illegible])
◆日本銀行券 發行高 / 正貨準備 / 保證準備 / 貸出高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四日)

◆京城正米 / ◆仁川正米 / ◆大阪正米標準價 / ◆京城雜穀 /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四日)

◆京城綿絲布市勢 / ◆京城綿布 / ◆日本麥粉市勢 / ◆치카코期變 / ◆鰯油沖價 / ◆鰯粕沖 / ◆滿洲商況 /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四日)

◆朝取短期 / ◆實定代引日步 / ◆朝取短期賣買高 / ◆東京現株 / ◆東京短期 / ◆東京短期取組 / ◆大阪短期 / ◆大阪短期氣配 /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四日)

◆朝取期米 / ◆朝取期米賣買高 / ◆朝鮮內各地期米 / ◆大阪期米 / ◆大阪期米取組 / ◆東京期米 / ◆大阪引後氣配 ([illegible])

商品 (四日)

◆大阪綿絲 五月 / 六月 / 七月 / 八月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棉花 / ◆各地人絹 / ◆橫濱生糸 / ◆大阪砂糖 (現物糖 (S.T) 賣買中値 二〇、八〇錢) / ◆海外砂糖 (秋期 晴爪五、六月 五厘七二仙三五) ([illegible])